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1999 7/8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일자: 1999년 7월 2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종로성당 3층강당 주최: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꿈어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275-8505-6
FAX: 2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9.7/8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2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법은 그 수혜자에게
적합해야 올바른 법일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이 작은 행보'가
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1999년 7/8월호(통권 70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
사회/펴낸이 정희연/묵
은이 박정애,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1999년
7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9년 7/8월호

통권 70호

권두언	4
보육정책1	6
보육정책2	14
특집	18
현장교육1	34
현장교육2	42
현장소식1	44
현장소식2	46
현장소식3	47
인물탐방기	49
어린이와 건강	51
여름의 영양과 어린이	54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57
좋은 그림책 소개	58
사이버 정보방	60
세상일기	61
육아일기	63
목소리1	66
목소리2	68
한국보육정보연구소	70
보육계풍망	82
소식과 소식	83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을 생각해 본다

유익정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정의연 · 남인순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의 의미

정의연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편집부

영아반 운영사례 - 24개월 미만

이윤경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

서은의

2차 교사재교육을 마치고-그래, 이 맛이야!

이미애

부모 상담기법 강연을 듣고

권미정

교사 재교육을 마치고

이경미

강화도의 임정숙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편집부

학동 전기의 영양 특성

고시원 · 서연정

아채 먹고 싶은 사람 모여라.

편집부

시그네텍스 어린이집에서 생긴일

시그네텍스 어린이집

도리도리 짹짹

고영미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탄생!

김지희

씨랜드수련원 화재발생으로 죽은 어린

주예민

맛벌이 엄마의 가슴 아픈 이유

박미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짧은 생각

물꽃우리(D)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면서

이제실

- 베를린의 음악교육 「리듬에 맞추어 신나게 뛰어보자」

김영명

편집부

편집부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을 생각해 본다

유익정 ·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 연구위원

보육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89년으로 기억된다. 당시 유니세프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비를 지원해주어 도시 영세지역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틀을 잡아보자는 것이었다. 당초 사업에는 영세지역에 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해보려 했던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자 동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로 그치기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때부터 그러한 이유들로 한국보육교사협의회(당시 지역탁아연합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셈이다. 당시 지역탁아소는 250여개 지역탁아소가 연합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본인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보육관련 연구업무를 계속 수행해오고 있다. 그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의 실시로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많은 발전을 해왔음이 분명하다. 현재에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 10년간 무언가 빠지 못한 느낌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보육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되는 요인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인 면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영유아, 또한 보육시설 활용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부모들,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행정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 보육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관련되고 있다. 또한 재정적인 요인에서, 운영과 관련된 요인 등등에서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보육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시각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보육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다. 때로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위하여 보육관련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보육에서 첫 번째 주인은 아이들 아닌가.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어른중심으로 보육사업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하루를 생각해보자. 아침에 등원한 아이들은 '보육시설의 환경'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소위 '보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리고 다양한 놀이감을 가지고 놀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은 하루종일을 보육교사와 함께 생활을 한다. 즉, 본인은 보육과 관련한 논의란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 환경'은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교육적인 환경이 준비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아이들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보육프로그램'이란 아동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 마련된 것인가. 하루종일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사

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동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쓰기 쉽고 질 좋고 활용가능한 '보육프로그램'과, 적절한 놀이감(교재·교구)과, 질 좋은 환경의 구성, 설비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어 보육교사들에게 활력이 불어넣어질 때 여기저기 즐거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들은 즐겁게 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본인이 수행한 한 연구(1999)에 의할 때 부모들이 보육정책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사항으로는 질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역시 질 좋고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감(교재·교구)이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의 보육시설에서의 하루생활을 꼼꼼히 돌아켜볼 때, 또한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보육관련 논의에서는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와 아이들의 놀이감(교재·교구) 즉, 질 좋고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감(교재·교구)을 어떻게 하면 값싸고 손쉽게 구입, 혹은 공급할 수 있을지에 우선적인 관심이 쏟아지기를 바란다.

보육의 첫 번째 대상자가 아동이라면, 그 두 번째는 보육교사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하루종일을 보육교사의 관심과 사랑과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로서 만족하며 종사하고 있는가. 보육교사와 관련한 여러 측면 즉, 자질, 자격, 전문성 등은 잘 지원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본인의 연구결과(1999)에서 나타난 바에 의할 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으로는 자신들에 관한 문제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로 대별된다. 우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많은 수의 보육교사들이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격관련 문제, 적절치 못한 처우문제, 과중한 업무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활용가능한 '보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늘 제기되어온 문제인 것처럼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인하여 적절한 놀이감(교재·교구)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우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보육시설 활용 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동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쓰기 쉽고 질 좋고 활용가능한 '보육프로그램'과, 적절한 놀이감(교재·교구)과, 질 좋은 환경의 구성, 설비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어 보육교사들에게 활력이 불어넣어질 때 여기저기 즐거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어질 것이다.

그간의 보육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보육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이 정비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육 수요자들에게 귀기울여 보육시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경험의 결과에서 이들이 수요자로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기로 보육시설에 첫 등원을 시작한 아이가 의젓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노라면 보육에 관계하고 있는 자로서 뿌듯함도 있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하는 책임감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더 많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제부터는 보육에 관한 논의가 보육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자인 아동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그리고 보육교사에게 더욱 중점이 두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영유아보육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활동

최근 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7월 2일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공청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경과와 당일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전반에 관한 주제발제, 교사관련 토론내용을 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기까지...

편집부

보육사업에 있어 올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양적확충에 기반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질적 수준 제고라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제도 및 정책의 개선안이 나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 시작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은 1997년에 종료되었다. 이후 정부는 작년에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제도, 보육인력의 수급적절성 및 전문성, 보육시설의 환경·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등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

평가의 결과 중 몇가지는 시급히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내용인데 특히 민간의존도가 높은 반면 공공성이 여전히 취약한 점,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정책마련과 제도정비의 필요성 등이 꼽힐 수 있다.

특히 민간의존도의 경우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의 결과 확충된 시설중 79.9%가 민간보육시설이고 공공보육시설은 18.7%, 직장보육시설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은 실제 계획을 238%나 초과달성한 것이고 공공보육시설의 경우는 애초의 계획에 53%정도 밖에 이루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결여는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경쟁의 논리에 기초한 사적시장에 맡겨질 것인가 사회복지서비스로서 공공성을 견지할 것이냐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성의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비용지원의 방식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설립주체에 따른 시설에 대한 비용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설립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아동별지원체계로의 전환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의 확대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보육의 공공성을 주장해온 관련단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현재 보육사업이 사적시장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차등보육료제도의 확대도입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9년여가 지난 지금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자격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가 비슷한 직종인 유치원교사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는 것은 누누히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이는 또한 보육의 질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시험을 치룰 것인가, 현재의 보육교사 급수체계를 더 세분화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가 수립되어도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모든 제도를 실시할 때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기는 지난 9년여의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을 총점검해보고 향후 몇 년의 보육사업을 규정할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바람직하게 개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작년의 평가작업에 이어 올초부터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우리 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자녀양육문제는 개별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95년~97년간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98년 상반기 현재

전국 17,127개 보육시설에서 546,477명의 아동이 보육 중에 있다. 그간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 예산도 91년도 419억원, 93년도 985억원, 94년도 1,188억원, 95년도 1,774억원, 96년도 2,375억원, 97년도 2,9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94년부터 97년까지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총 6,058억원을 연리 8%, 최대 9억원, 최장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였다. 그 결과 97년까지 총 3,174개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이처럼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이 종결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보육프로그램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자질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육사업의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복지부에서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일정을 늦추겠다고 하니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보육의 공동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보육비용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2. 법 개정의 방향

■ 목적과 이념

지금까지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왔다. 즉 영유아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우선 사업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일정 타당했지만 이제 보육사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으로 목적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보육관련 기구에 대하여

(1) 보육평가위원회 신설

보육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된 상태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교사 등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와 참여구조가 부재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육수요자의 입장을 보육정책에 반영시키고 보육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보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평가위원회는 보육의 질 제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보육수요자에서 보육서비스를 평

가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평가위원회는 전국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해야 하고 복지 및 아동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및 교사 대표, 보육수요자 대표,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보육협의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상이다

영유아보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보육수요자, 보육교사훈련원, 보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하다. 영유아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각 각 발전하도록 보건복지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성장에 기초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보육 관련 기구를 협의회로 묶으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다양한 보육관련 단체 및 세력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이들 단체간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민간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 보육사업 관련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부분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화 하고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6.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에 따르면 국가책임 및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보육체제'라는 기조로 시장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기 조하에 보육표준단가를 자율화할 경우, 영유아의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이 차이 가 나게 되므로 보육의 공동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보육표준단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보 완하기 위해 법 제정 당시 많은 논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78%에 이 르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자율화하면 보육 의 형평성이 담보되기 어렵게 된다.

(1) 보육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되면서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설 중심지원방식에서 아동 중 심 지원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비용을 수익자 전적인 부담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를 지향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육료를 적용하고 차등 보육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차등보육료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도시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등보육료 도입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면서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국가적인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가정 의 소득 파악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보육조례에 따르면 제 18조(비용의 보조) ②항에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 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것은 매우 고부적이라고 본다.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각 시·도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보육율이 78%를 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1) 장애아·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1997년 12월 현재 장애아보육 전담시설은 36개이다. 전체장애아 1,028,900명(보건복지부 통계) 규모에 비추어볼 때, 보육대상 아동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장애아보육 전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영아보육전담시설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영아전담 보육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공립 장애아보육 및 영아보육 전담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 또는 영아보육을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정해체로 인해 방치된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습 위주의 학원보다는 인성교육 위주의 방과후 보육활동을 찾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조용하여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은 공급자 위주로 편제되어 있어 아동의 입장에서 법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못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아동의 입장과 관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방향

-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정의연 · 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후이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와 그에 양적으로 훨씬 못미치는 시설로 인하여 방치되는 아이들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는 우리 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단체와 보육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이 상정한 법안이 본 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정당시부터 일정부분의 기본적 한계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저임금구조에 근거한 경제발전이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방치아동의 문제를 풀때는 보육사업만을 규정하는 단독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부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8년 정부는 그간의 보육사업에 대한-특히 1995년에 시작되어 1997년에 사업이 완료된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던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확충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보육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간의 보육사업의 기초는 시설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보육사업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보육사업의 정책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의 평가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한 방안은 향후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 보육사업을 규정할 정도의 중기적 계획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의 시도는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육정책과 보육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유아보육법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전반적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방향과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되 특히 보육교사 관련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김종해 교수님의 기초발제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문제는 그간 우리 보육사업의 한계로 누누히 지적되어온 공공성의 미흡, 민간영역에 대

한 과도한 의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시급한 양적 확충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시설확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규계획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시설의 신규설치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는 앞서의 발제문에서도 보여지듯이 3개년 시설확충의 기간동안 올린 238%의 양적팽창은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재원의 투입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껏 정부는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하여 설립주체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공적재원의 투입은 불가하다는 시각으로 민간에 대한 정책을 펴왔다. 양적으로 민간영역이 접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아동보육이 사적시장의 기제에 맡겨질 개연성이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시설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동별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당장의 전면적 실시가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재원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정한 운영기준과 방침을 정해 그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점 높아지는 요구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특수보육서비스분야에 있어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별지원체계로의 지원에 있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민간영역에 대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시장에 맡겨질 것이냐 아니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된 것과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몇가지를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영유아보육법은 법의 목적에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에 상충되는 내용으로 그 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법 4조의 보육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을초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폐합 지시에 따라 보육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육위원회가 왜 활성화되지 않았는지의 원인규명이 없이 현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육에 관련된 주체들의 민주적인 참여통로로서 보육위

원회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 보육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의 기능을 첨가해야 한다.

셋째, 비용의 보조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대로 시설설립의 주체에 따른 비용지원 방식을 아동별지원과 설립주체가 개인이더라도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의 질적수준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보육교사 관련제도의 정비와 이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1) 현행의 자격인정제에서 자격증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2) 자격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관련학과와 이수과목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 3)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실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 4) 자격연수교육과 일반연수교육이 명확히 구분되고 정기적인 일반연수교육의 실시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 5) 보육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의 의미

정의연 · 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이 글은 참여연대의 기관지인 「사회복지」에 실린 글로 지난 우리네 아이들 5.6월호 실린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과 연결 됩니다.]

1. 보육사업의 성격 및 보육조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보육사업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감독의 기준과 수단, 비용의 부담, 지방의회의 관여여부, 조례제정권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규정함으로써 일단 보육사업을 국가사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업무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시, 도지사에게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된후 8년여의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사무가 주종을 이루어 대부분의 보육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어 왔다.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동법 제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외에 보육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치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지역수준에서 구체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또한 장기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방침과 지역주민의 요구사이의 괴리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및 실시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수렴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육사업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고 사무의 직접적

수혜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 보육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가 있다. 다행히 최근 몇 년사이 몇몇 지역에서 보육관련단체 등에 의해 보육조례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지난 4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보육조례가 통과되었고 5월 10일 서울시 보육조례가 공포되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들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지만 이번 서울시의 보육조례는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방과후 보육, 비용 등 자치사무로 규정되는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육조례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울산시와 안산시 정도가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사업에 있어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볼 때 타·시도에 대한 파급적인 영향력은 울산시와 안산시가 보육조례를 제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리라 생각된다.

서울시는 타시도보다 월등하게 재정자립도가 높아 그간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렇게 타시도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보육조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간의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관행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수립이라기보다 상부의 지시와 절차,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유일하게 여겼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8년여의 보육사업의 결과 보육사업의 효과적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만으로는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지방의 인구구성비, 보육대상 아동수, 산업구성, 주민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 등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이 결부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 근거가 되는 것이 보육조례라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의 내용

서울특별시의 보육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 방과후 보육,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등 총 6장 2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목적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에서 진일보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서 보이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사고에서 서울특별시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수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보육위원의 구성을 보면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보다 구체화시켜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보육시설대표, 시민단체대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다. 시민단체 대표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제단체들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는 설치 및 운영, 설치기준, 기능, 구성,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비용면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로 명시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조례에서 비용보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4장 방과후 보육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기준, 교육훈련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의 비용을 살펴보면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비용의 보조 1항의 보조대상에서 영아·장애아·야간·24시간·휴일제 보육운영비용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개발 및 이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사재교육비와 보육아동 급식비의 항목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국공립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포함하여)것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결정되는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보다 일보 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8조 2항의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보칙에는 교육, 시설의 평가,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모범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에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3.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의 제한점 및 의의

서울특별시보육조례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 이는 1998년 4월 30일에 제정된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일괄 다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법률에서도 규

정하고 있다시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다.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의 수요·공급의 계획 등에 있어 조례에 이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의 조항이 있음에도 평가를 어떻게 어디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는 현행의 구조로 볼 때 보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이의 첨가가 필요하다.

제 18조 비용의 보조항에서 영아·장애아·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활성화 정책에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이미 타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특수보육서비스를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몇가지 제한점을 지적하였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조례에 담겨질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가지는 한계, 그에 근거한 현재의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기조, 타시도와 비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이후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직접적 수혜자인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개선시켜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의 제정은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도 명시되었다는 점(특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간 모범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요구하는 보육운동 단체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왔다)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의 제정에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작업에 참여하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다른 하나의 의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 새로운 보육의 지평을 넓히다. · 실재편 -

편집부역음

이래 글은 지난해에 소개된 특수보육프로그램운영교육의 내용 중에서 미술교육과 영아교육 실재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발도르프 미술교육활동의 일반적인 실제

Gisela Braune, Wolfgang Sassmannshausen

통역 및 정리: 윤선영

질문) 발도르프 교육에서 미술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Braune : 발도르프 현장 교육에서는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기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항상 아이 스스로에 의해서 그려지고, 자유시간에 주로 그림을 그리며, 교사에 의해서 주제가 주어지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교사로서 아이에게 그림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내가 인식하는가, 그 두가지로 나누어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림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 질문을 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발도르프킨더가르텐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주로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설명을 하면, 우선 책상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종이가 놓여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주요 색깔이 들어있는 물감을 줍니다. 붓은 아주 두꺼운 붓을 주죠. 거기에 물 한컵과 형질을 줍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젖은 종이를 나누어 준 다음에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붓이 종이 위로 산책을 갑니다. 그러다가 노란색 물감통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다가 나와서 다시 종이 위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햇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고 좀 더 큰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합니다.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교사의 이야기처럼 노란 물감에 붓을 목욕시키고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 더 연령이 높아져 4세가 되면 노란색에 빨간색의 물감을 더 놓아줍니다. 붓이 도화지 위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물감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씻어야 합니다. 붓이 충분히 씻겨지면 형질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목욕탕에 방문을 합니다. 빨간색 목욕탕에서 목욕한 붓은 노란색으로 그려진 종이 위에서 산책을 하며 노란색을 만납니다. 젖어있는 도화지 위에서 말입니다. 노란색이 그려져서 번져있는 상태에서 다시 빨간색이 칠해지면 그 두가지 색이 서로 어우러져 번지면서 하나의 살아있는 ‘색깔요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형태를 나타내든지 수직적인 모습을 나타내든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내는 모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색깔과 색깔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빨리 몇 가지를 그리고 나서 “다 했어요, 선생님”하고 또 어떤 아이는 물감의 느낌에 완전히 몰입해서 오랫동안 열중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젖은 종이에 물감을 계속해서 문질러대며 종이가 나중에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과 신경을 써 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교차시켜 부지개빛 그림을 그린다고 빨간색을 바탕으로 해서 노란색을 그 위에다가 칠해보는 실험을 합니다.

아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파란색을 더 줍니다. 설명한대로 아이가 색깔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파란색이 더 주어지게 되면 그림 자체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큰 아이들은 색깔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색칠하기에 몰입해서 그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실험을 하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물감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감놀이를 마치고 나면, 색연필을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물감 그리기는 교사가 있고 특별한 시간에 함께 그리고, 색연필로 그리는 것은 자유로운 시간에 많이 그리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색연필로 그리는 것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교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반은 오전내내 전체가 다 같이 그림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반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4명 또는 6명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그림 그리는 작업 자체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곁에서 놀고 있는 아이는 절대로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첨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발도르프킨더가르텐 교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식물농축액으로 색깔을 만들어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에서 추출한 색깔은 도화지 위에 그리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마르고 나면 색깔이 비로소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식물성 물감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게 되면, 아이들이 색깔에 몰입하는 과정을 더 긴밀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색이 제공되는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

다. 왜냐하면 이 색깔로부터 모든 다양한 색깔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색깔을 경험함으로써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색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세계에 아이 자신이 몰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에 대한 측면인데,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들에게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항상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다 매우 지 않고 여백을 남기고 여기저기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끝낼 줄을 몰라요. 세 가지 색이 섞여 나중에는 검은색으로 변해서 도화지가 검컴해질 때까지 그리는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 경우 계속하여 몰입을 하는 아이죠. 그래서 바로 이 경우를 통해서 치료적인 의미는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아동들에게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도화지에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주고,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시커멓게 그리는 아이에게는 교사가 개입해서 너무 시커매지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감 얘기를 다시 하면 교사는 식물의 농축액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물감을 만듭니다. 서늘에도 인사동에 식물 농축액이 있습니다. 일찍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색을 활용하는 체험 그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색깔에 몰입하는 과정을 훨씬 더 긴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감은 공물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하는 것과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질문) 발도르프 미술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assmannshausen :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아이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듯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표현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측면은 어린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형상화,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형상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발달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교사가 만약에 지금부터 나무를 그려라 혹은 뭐를 그려라 하고 과제를 준다면 자기 자신을 형상화 하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은 멈춰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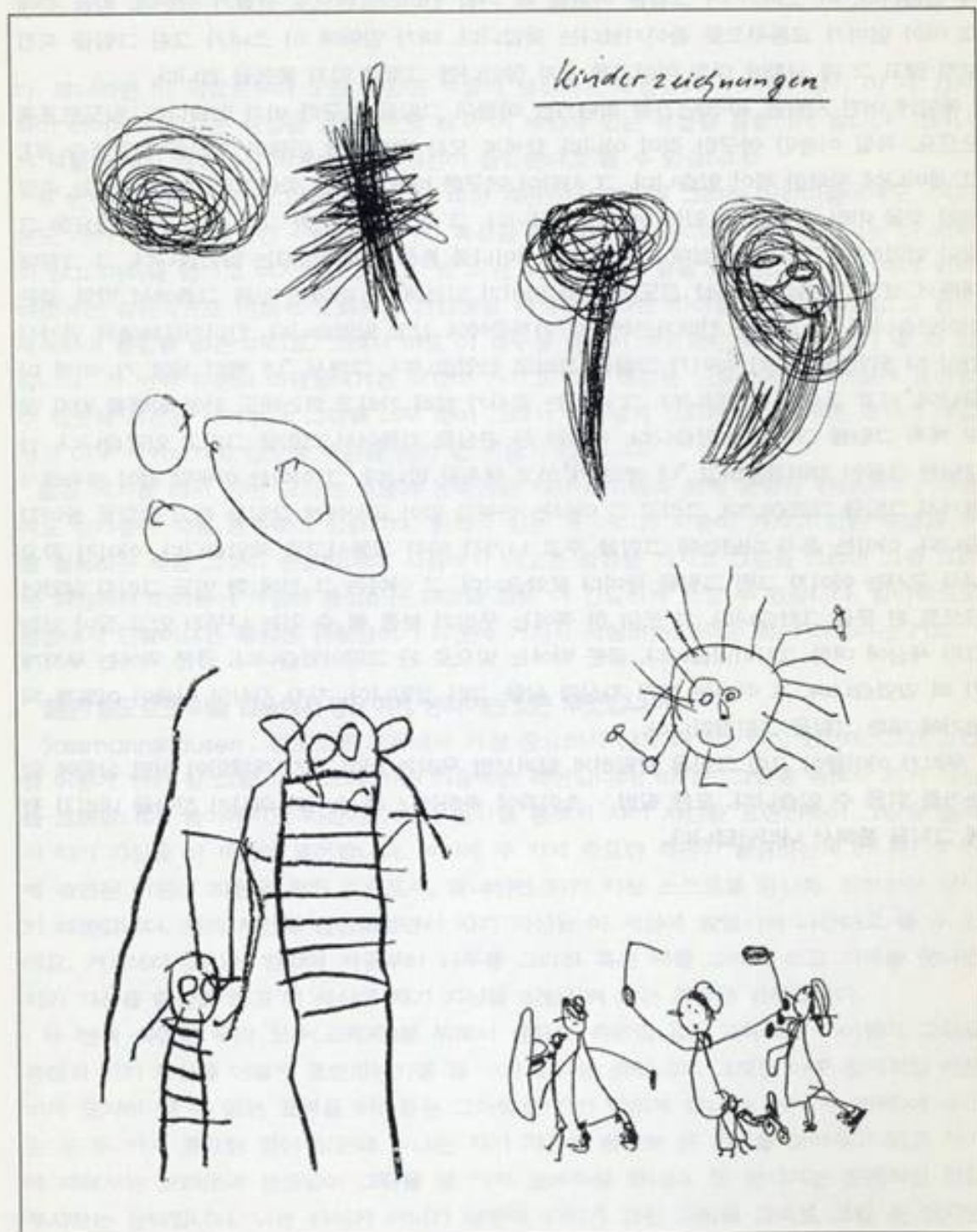
두 번째 측면은 우리 모두(교육자)를 위해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교육자가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천재적인 어른마저 도저히 할 수 없는 표현을 아이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두 번째)에 속하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발달해 온 현재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브라운의 선생님이 그림을 몇 가지 보여주실 겁니다. 또 한가지는 운명적인 것을 투사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순 없지만

아이의 천재적인 측면을 흉내내서 보여주겠습니다. (철관에 그림을 그리면서)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파란 하늘이 있어요. 빨간 색 해가 떠 있구요. 그리고 잔디밭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어른과 두 아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어른이 태양 안에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 그림을 마쳤을 때 마침 킨더라르텐으로 전화가 왔는데, 방금 전에 그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소녀가 그린 그림을 직접 보지 않고 그 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독일에 어떤 사람은 40-50년간을 학령기전 아동의 그림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발도르프쪽으로요. 독일 아동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학령기전 아동의 그림을 연구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학령기전 아동들에게는 숙명적인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 여자가 연구한 그림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절대 출판하거나 세미나를 통해서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살 정도의 남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보통 그룹에서 말쑥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소년은 킨더가르텐에서 가까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킨더가르텐에서 귀가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빨리 집에 가. 이제 다 끝났어."라고 교사가 말했답니다. 그 아이는 교사가 빨리 가라고 했는데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온 관심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정리정돈하고 "너 빨리 가"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말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말 없이 교사에게 그림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다녔는데 그림을 주고 나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교사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전에 한 번도 그리지 않았던 금으로 된 문을 그렸습니다. 그 문의 한 쪽에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집이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금문 밖에는 빛으로 된 그림이었습니다. 금문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아이 각자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 소아과에 속하는 - 은 소아과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그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Braune : 여러분이 받고 계신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에 그림이 들어 있을텐데 몇 살쯤의 아이가 그렸을까 추측해보세요. 이 그림의 유형이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받던 유형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은 한 아이가 자라면서 죽 그린 그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연령도 다양하고요.

첫 번째 그림은 18개월 정도의 아이가 그린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광경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종이는 아이들에게 항상 작아요. 아무리 큰 종이를 주어도 팔이 끝까지 닿을 때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종종 아이는 팔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그림이라기 보다는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가 머리가 대천문이 닫힐 때입니다. 옆에 그림도 비슷한 연령의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그 아이는 단지 움직이는 동작이 달랐죠. 두 살 정도 가까이 되는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린이의 발달 상태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다리가 좀 튼튼해져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직선으로 몸을 가누게 되는 때죠. 이쪽에 있는 그림은 두 살 반 정도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그린 모습을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처음 시작한 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어느 때는 삐뚤삐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들에게 대단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 옆의 그림은 세살 정도의 아이가 그렸는데 곁에 있는 동그라미가 비교적 성공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원을 보충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세 살때의 그림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림 세 살때의 아이들에게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향기라고 그러죠. 이 연령의 아이들이 대부분 "싫어"라고 표현은 많이 하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이마가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이마의 뼈가 닫혀있지 않았다가 3세경이 되면 이 뼈가 튼튼하게 서로 붙는답니다. 이마가 판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3살 반 정도에서 4살 사이입니다. 머리에 손, 발이 다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서 있다. 내 신체의 모든 기관은 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선물하는 것은 전부 나에게 들어 있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4세 반에서 5세 사이의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아이들의 등뼈가 이전에는 험렁험렁하다가 서로 완벽하게 얹혀서 척추뼈가 튼튼하게 곧아지는 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뼈가 동글게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가 되면 점점 더 평면화 되어갑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복식호흡에서 흉식호흡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가슴부분에 복잡하게 뭐가 그려져 있잖아요. 발과 손이 아직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갈비뼈는 갖고 있죠.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6살 정도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이 팔, 손, 다리, 발도 있고 사람들이 신기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 이 아이가 이

제 학교에 들어갈만 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젖살이 빠져서 흠뻑해지는 상태이고 팔 다리가 길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신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변화가 담겨있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림의 본을 준다거나 과제를 주어서 무엇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러한 발달과정을 표현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거죠.

질문) 그림을 보는 시각과 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아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Braune :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과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이 연령이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거기다가 항상 날짜를 쓰고 스크랩북에다가 철을 해 나갑니다. 아이가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을 마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기 전에 아이들의 그림을 들춰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이런 비슷한 형식의 그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의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잘 그렸네. 굉장히 잘 그렸네'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너 무엇을 그린 거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의 그림에 대해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으로 보이는 사람 얼굴에 다리가 붙은 것으로 보이든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유형의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호주, 한국, 독일 등 전세계 모든 나라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때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전형적인 유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거나 오지의 세계, 지구의 구석구석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장애인인 경우 장애아 스스로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가?

Sassmannshausen : 나는 두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두 부분 중 하나는 아이인 내가 스스로 신체적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부분과 나(장애아) 개인을 표현하는 두가지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신체적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운명적인 특성입니다. 내 제자 중에 한 여학생이 실습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교수님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몇 살 정도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어린이들의 그림에 대한 세미나를 학생들과

했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그 여학생은 이미 보통은 3세 정도 된 아이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이 그림을 14살 된 남자아이가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물보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육기관에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 동그라미를 맞춰 그렸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이 그림을 마쳤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기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일반적으로 발달이 지체가 되었는지, 아닌지, 정상적으로 발달되어가고 있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적인 특성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에서는 정상적인 아이들의 그림에서 보다 훨씬 더 숙명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장애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훨씬 더 투명하게 그림에서 보여집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장애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 여자아이가 머리를 기르고 예쁜 방울을 달고 싶어하는데 엄마가 이해주자 그림에 늘 예쁜 방울을 단 긴 머리 소녀를 그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사로서 반응해야 하는가?

Braune :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가 문제를 표현할 수 있고 교사가 너 무엇을 그렸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아이 스스로 그것을 자주 표현한다면 엄마에게 보여주고 그런 식(머리를 기르고 싶어하는 아이의 바람을 전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질문)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중략)?

Braune :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이는 무엇에 대해 그리겠다고 의식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려나서 그린 그림인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생각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야기가 먼저 되고 그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그림에 대해 그리겠다고 생각해서 그릴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시설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어린이들의 습관으로 머무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아이들과 한다면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야 할 것은 순수하게 우려나서 그린 그림과 그림을 그린 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Sassmannshausen : 유럽에서는 어린이의 그림을 가지고 어린이의 성숙력을 알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자체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엄마가 봤든, 아빠가 봤든, 교사가 누가 봤든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은 증거물도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5살난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빨간색으로 불이 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림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림을 보면서 혹시 이 아이가 열이 높은 질병에 걸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를 기르고 매서 방울을 단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긴 머리를 갖고 싶어하죠. 그러면 나는 그림을 보고 이 아이의 소망이

상당히 감렬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이가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을 보고 일단 진지하게 이 아이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선 교사로서 감지해야 하고 그 다음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와 너 머리 기르고 싶으나 묶고 싶으나 하고 물을 필요가 없이 그 아이의 소망을 위해 교사인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관심있는 관찰력과 나름대로의 판단, 교사의 예민한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위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능하면 동판 수집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아이들 그림이라도 좋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라도 좋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좋고, 아무튼 그림을 전부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그렸는지 이름을 쓰고 이름 뿐만 아니라 몇 년 몇월 몇일에 그린 그림인지 자세히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집한 그림이 상당히 쌓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휴가를 갖게 되면, 휴가중에 조용히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그림을 분류해서 차례 차례로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어린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다는 그것이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까지 또는 이 그림에서 다른 그림으로 발전해 나가기 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변해가서 그 그림이 되는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해서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발달해 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 발달심리학이 이론적 지식으로써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질문) 그림을 모두 새까맣게 칠하는 경우에 대하여(중략).

Sassmannshausen : 내가 한 킨더가르텐에 있는 한 어린이에 대해 교사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킨더가르텐의 교사가 나에게 이 어린이를 하루종일 와서 관찰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 해 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화지에 여백없이 새까맣게 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찰해보니 정말 그 아이는 공격성이 상당히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른들 특히 교사를 많이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림과 그 아이의 상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볼 수 있죠. 한 가족의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의 아이가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지,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집을 빠져 밖으로 나갔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어린이로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세상이 까만 상태죠. 지금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나와 교사는 그 아이를 관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사와 함께 그 아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색깔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게 하자. 색깔을 너무 많이 칠해서 새까맣게 만들지 않도록 해보자. 그렇다고 잔인하게 '너 그만해' 하고 제한을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새까맣게 칠하기 전에 아직 여백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 코멘트를 장황하게 하지 않고 - "그림 참 잘 그렸네" 하고 아무말 없이 그림을 말리는데 가져다 놓는거죠. 어린이가 '아,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게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하지 않도록, '너 그림 다 그렸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다 놓는다는 거죠.

영아보육의 실제적 질의 응답

Giesla Braune

통역 및 정리: 윤선영

영아보육 본과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는 중에 제가 저의 입장에서 즉, 저의 경험에 의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합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테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슬라이드 상영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옷을 벗고 있던데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는 아이들이 옷을 다 벗고 지내는지요?

답변) 슬라이드 사진에 아이들이 옷을 벗고 있는 그림이 거의 들어 있을텐데, 그 경우는 사진을 찍으며 연구한 '에미 피를러' 라는 여자가 의사였고, 아이들이 해부학적으로 또는 골격적으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4주에 한 번씩 아이마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이의 몸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 나온 아이들이 발가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옷을 입고 지냅니다. 에미 피를러는 어린이들에게 가능하면 가볍고 느슨한 옷을 입혔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자기 근육과 뼈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피부에 있는 털, 모근 속에 있는 촉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문에 좀더 추가로 설명하면, 보통 아기들은 피부에 있는 촉각을 즐겨서 느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비누칠을 해놓고 나면, 미끌미끌한 그 감촉을 움직이면서 느껴 본다든지, 아니면 징그럽다는 듯이 진저리를 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피부를 느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그 피부의 감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기가 똥을 누고 나서 자기 똥을 문질러서 발라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촉감을 느끼려는 욕구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아이가 기저귀를 갈려면 거부하고 울거나 떼를 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혹은 여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어떤 사고영역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지금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설탕하고 소금을 바꾸어 넣었어요. 나중에 맛을 보

고 나서 '아! 내가 이거 만들 때 생각이 딴 데 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조금 대신 설탕을 넣어서 찌개를 망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아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기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반응을 합니다. 아까 요리를 할 때는 그냥 간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고 단맛이 나서 화가 나는 걸로 끝나지만 아기와의 관계는 아기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교사가 또는 엄마가 웃을 입히려고 할 때 아기가 안 입겠다고 몸을 딱딱하게 굳히면 얼마나 입히기가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아이는 어른으로 하여금 웃을 입힐 때에 주의력을 요구를 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어른으로 하여금 딴 생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웃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웃을 입힐 때까지 버팁니다. 그럼 우리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아마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웃을 입히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번 아기의 손이나 목 근육 등을 자세히 살펴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즉 당신(교사나 부모)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내면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거기에 몰입되어서 하고 있는 지 아니면 자기가 받은 딴 데 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자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때에, '내일 내가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이 거기에 몰입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구체적인 일부터 해 보십시오. 작은 일을 점차 키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분명히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36개월 이전의 영아가 문을 열려고 하면서 안될 때 짜증을 내거나 우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성질이 나빠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독일에는 영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린 영아를 시설에 맞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물론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엄마가 같이 안에 있을 때와 엄마는 밖에 있고 아이가 그 안에 혼자 있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엄마가 아이를 놓아두고 밖에 나갈 때는 분명히 문을 열어 놓고 나갑니다. 아이가 자기 시각 안에 들어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른이 알아차렸을 때는 그 아이가 혼자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잘 안 되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자기 나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특별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너무나 많은 그런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 화낼 줄도 알고 성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는데 아이들에게 닥치는 문제 - 예를 들어 문 여는 것 - 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어른으로서 그 장애물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참가자들: 아니요)

독일에서는 영아반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있는지 등등 여러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많은 실험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걸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주 양육자가 누구이어야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사회가 얼마만큼 편부모 특히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임파에게 매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기간이 3년간입니다. 아이 성장에서 처음 3년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 엄마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자가 배치되어 매번 주기적으로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아기를 낳고 나서 3년 동안 집에서 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녔던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만이 산 후 휴가를 갖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아빠가 대신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다시 그 직장에 복귀하는 거죠. 그것이 독일에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정리자 주: 우리 나라의 놀이방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자기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남의 집 아이를 두세 명 더 데려다가, 다섯 명 미만으로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이러한 곳은 복지부 관할하에 주기적으로 사회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반만을 따로 돌보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정리자 주: 70년대)부터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아기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자고 해서「기는 아기들을 위한 그룹」이라는 민간 시설 기관을 만들어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그룹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라서 주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보수파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아반이 발전되는 속도가 조금 늦고, 큰 도시에는 영아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베를린의 모든 국공립 킨더가르텐 내에는 영아반이 거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영아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키우느냐, 교사가 키우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원칙적으로 말을 하자면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사회가 발달되어감에 따라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가정주부들의 주변에 주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등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가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는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고층건물에서 가정이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또 극단적인 경우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성의 문제가 되죠. 과거의 여성과 현대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차이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잘 관찰하되,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첫 2~3년간을 정말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가 그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 나약한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소음들, 불빛들, 여러 가지 나쁜 공기, 특히 백화점에 들어가면 얼마나 공기가 안 좋습니까? 이 세계에서 아이에게 영향을 나쁘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대 원시시대 사람을 서울에 갑자기 데려다 놓으면 아마 금방 죽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갓난 아기는 원시시대 인간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기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개별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아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의 여성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이 사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방법을 썼나 하면 아웃에 나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 또한 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전 중에 네 시간 동안 누군가를 불러서 (한국에서는 베이비 시터: 정리자 주) 아이들을 전부 모아서 같이 돌보도록 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시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책도 읽고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긴데 나는 나의 셋째 아이 낳 때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은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교대로 봐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몇 살 몇 살 될 때까지 서로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함께 상의를 해서 타협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킨더가르텐의 교사로서 2시까지만 일을 했고,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로 두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각자(부모)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삶을 계획적으로 서로(부모와 아이) 간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가를 합의하면서 그것을 구상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라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가능성)을 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영아들 중 기질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욕구를 나타냅니다. 한 아이가 유난히 바깥으로 나가기
를 원하는데,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집단활동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로서 확실적인 교육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수의 활동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다른 아이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답변)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의 주변에서 인식한 것, 감지한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모방하는 중에 아이는
그냥 재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환타지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놀이터가 시설 내에 없어서) 아이가 전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교실
내의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주고서는 "여기가 네 집이니깐 여기서 살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이
경우 아이의 활동성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자의 시설이 환경적으로 (야외놀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
안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혹시 혼자 구석에서 놀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교사가 관심을 두면서 5분에 한번씩,
만약에 옆방에 있다고 한다면 가끔씩 쳐다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 안전성에 대해 추가
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활동성 즉, 움직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
는데, 아이들은 책상에서 의자를 올려 놓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3차원의 앞, 뒤, 옆, 위,
아래 등 공간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제
공간으로 해서 움직임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따로 공간이 필요한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안을 한 것입니다.

옛그제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의 어린이집에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나무
토막같이 생긴 것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지만 너무 가벼워서 집어 던지면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아기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물입을 하면서 잘 놀 수 있는 놀이감은 엄청나
게 크고 무거운 것 그 중에서 예로 의자를 들겠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무거운 의자를 끄끽거
리고 끌고 가는 모습을 아마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묵직하고 큰 물건들이 영아기
아이들에게는 너무 너무 적당하다는 겁니다. 크고 무거운 의자 2개를 붙여놓으면 침대가 될 수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천을 하나 덮어주면 집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의자 밑은 지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창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
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 놀이감은 영아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아이
들은 무겁고 묵직하고 큰 물건들을 끌면서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첫 번째로 30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이후 할머니가 키우고 있으며, 그 아
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어, 교사로서 시설에서 보살피기 어려워 다른 아이들에
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26개월
정도 된 여자아이는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부모에게 요구하여 부모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먹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단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그 30개월 된 남자아이가 처한 상황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지

금 자기 자신의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밖에 있는 혼란스러움을 행위로 재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번 강연에서 3살 이전까지는 자기와 세상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부 저한테 “선영아, 밥 먹어라.” “선영아, 옷 입어라.” 이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 “선영이 밥 먹을까, 선영이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 3자인 것처럼 말하듯이 완전히 세상과 내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 3살 전까지는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하게 고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왔고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의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세상이 하나였던 게 갑자기 딱 정지가 되고, 즉 사라지고 제 3자인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라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아이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측컨대,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서 소위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태면 분명히 할머니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지금까지 하나였던 세계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이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이 아이 탓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았다면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나는 지금 네가 있는 상황 그대로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선생님이 바로 당신이라면 제가 권하건대 오늘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당신의 마음 속에 그 아이를 담은 채 잠들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 분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나는 이 아이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담겠다, 담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두번째 26개월된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장난감도 많고 뭐든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불행해요’ 이것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 구절이 의미하듯이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자라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용함, 어른의 인내심, 시간,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에게 향한 관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여자 아이의 경우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전부 그냥 섞여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가 요즘 독일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삶의 리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특징이죠. 저에게 있어 잠이란 참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안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떠들면 ‘쉿, 조용히 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잠들니까? 비디오가 켜져 있는 앞에서 잠들고 있거나, TV가 켜져 있는 앞에서 자거나, 아니면 큰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는 옆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면 정말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잠을 자는 것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일 때만 자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진짜로 잘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질문한 내용만 들어서는 그 아이가 밤과 낮이 바뀐 잠에 대한 문제로만 국한해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그 아이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스스로가 발단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발단 부분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3주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동안 집중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 혼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협력작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 견해로는 의사와의 상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하나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의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말이 늦은 아이에 대한 질문(중략)

독일 어린이들이 독일어를 배우고 한국 어린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며 자라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독일어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이들은 모방하면서 배우고 익히며 자랍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어 습득입니다. 즉, 모방의 원리에 의해 언어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연령이 되면 비슷한 말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의 경우는 조금 늦게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 입의 전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언어 습득에 관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Karl”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이가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했을 때 역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킨더가르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 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학교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 교사와 의논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는 글쓰기 등 여러 가지를 잘 배워나가 부모가 기뻐했지만 역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는 점심을 먹으라며 식탁에 스프를 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엄마, 스프 맛이 너무 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 “아니, 너 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여태 말을 안 했니?”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영아반 운영사례 - 24개월 미만

이윤경 · 서울 서부지회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개월수에 따라 발달 정도와 과제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진행과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 또래와 어울리기보다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더 좋아하고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와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아이들을 적은 수의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다음의 사례는 98년도 영아반 운영을 하면서 아이와 교사가 좀 더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이다. 어린이집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참고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98년도 소망반의 조건

- 대상 : 생후 7개월 ~ 생후 24개월(15명)
 - 대상의 연령 분포
 - 12개월 미만 - 4명
 - 12개월 ~ 18개월 미만 - 6명
 - 18개월 ~ 24개월 미만 - 5명
- 교사수 : 3명(영아반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2명, 영아반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1명)
- 보육환경 : 한 교실에서 식사, 잠자기, 놀이활동을 모두 해결해야 되는 상황

교실내에는 2층침대, 교사용 책상, 교구장, 유아용 낮은 책상, 낮은 미끄럼틀이 있어 비좁은 상황. 바깥놀이 시설이 없음. 특히 IMF로 원아의 입·퇴소가 수시로 있어서 (1년간 20명 이상이 입소했다 퇴소함)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가정환경 : 맞벌이 가정(봉급생활자5 : 자영업5의 비율)으로 9시 이전에 등원하여 6시 이후 까지 남아있는 영아의 수가 절반 이상, 육아의 경험이 거의 없는 부모도 상당수 있음.

• 교사간 협력작업

15명의 아이들을 3명의 교사가 "공동담임제"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간의 역할 분담, 의사소통, 협력작업이 매우 중요했다. 신학기 준비를 하는 2-3일 동안은 기본적인 역할 분담과 반 운영의 원칙들을 정하는 정도였고 1년 내내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 회의는 주로 아이들을 재우고 나

서, 점심 먹으면서, 퇴근 직전에 이루어 졌는데 형식을 갖춘 회의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정해 가는 식이었다. 반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3등분하여 1주일씩 돌아가면서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함으로써 힘든 일과에 의해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자신이 맡은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일이 밀리거나 방치되지 않고 일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 식사 담당 : 우유병 타기, 오전.오후 간식 준비, 식사준비, 귀가전 아이들 씻기기, 귀가시 우유병 챙기기
- ㉡ 청소 담당 : 교실 청소(식사후, 간식후, 낮잠자기전, 수시로) 기저귀 갈기, 대변 본 영아 씻기기, 낮잠준비
- ㉢ 주도적 일과 진행 : 등·하원 지도, 준비물 점검, 부모상담(전화 받기 등), 관찰일기 쓰기, 주요 놀이 활동 진행, 친구 정리

• 하루 일과표

하루 일과는 몇가지 큰 틀만 정해 놓고 융통성을 많이 가지려고 했다. 영아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잠자는 시간, 수유 시간 등이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15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하루에 2차례정도 낮잠을 자는데 그 이상은 1차례만 낮잠을 자는 등 차이가 많이 나서 두 종류의 일과표가 엇갈려 진행되는 꼴이 되었다 (표1 참조).

아이들이 자라서 여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하반기에는 모두 한차례만 낮잠을 자게 되었다.

일과표

(표1)

	◀ 오전						오후 ▶			
	7:30	9:00	10:00	11:00	11:30	12:30	1:00	3:30	4:30	5:30 6:00
15개월 미만 영아	등원 소지품 정리 사전 일기장 확인	자유놀이	수유 또는 오전 간식 귀저기 갈기	낮잠 또는 개별 활동	점심 또는 수유	교사와 상호 작용(준비한 놀이활동)	오후 간식	낮잠 또는 개별활동		
15개월 이상 영아										
			오전 간식 배변	교사가 준비한 놀이 활동	점심 세면 기저귀 갈기	낮잠	기저귀 갈기 배변 오후 간식	세면 옷갈아 입기 귀가 준비	자유놀이 귀가지도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활동, 배변, 잠자기였다. 교사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나 계획된 놀이활동도 위 3가지를 하는 동안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상반기에는 놀이활동과 일상생활(일과진행)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배변학습(기저귀 떼기)이 끝난 영아를 중심으로 계획된 놀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예) 활동명 "술가락으로 먹기"

대상: 18개월 이상의 영아

방법: 컵에 조리종이나 인디안 밥을 약간 담아 우유를 붓고 술가락으로 떠 먹게 한다.

목표: 술가락 사용법을 익힌다.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른다.

여럿이 함께 먹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눈다.

활동시간: 오전간식 시간

• 놀이 활동 계획서

연간 계획서는 영아반 교사(24개월 미만 영아 담당교사 3인+ 만 2세 영아 담당교사 5인) 함께 계획하여 신학기에 부모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 틀에 맞추어 반별로 세부적인 것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단원은 영아들의 발달 정도와 습득해야 할 기본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짜도록 노력하였고 월별 행사와 계절 감각을 고려하였다(표2, 표3 참조).

주간교육계획안

〈표 3〉

일단원	궁금하구나	주제	비오는 날	기간	98년 6월 22일 ~ 29일
목표	날씨변화와 그에 따른 의복의 변화들을 관찰하고 느껴본다.				
영역	활동명·활동내용				
사회관계	· 신문지 풍치를 휴지통에 던져 넣어요-팔근육의 조절기능을 기를 한다. · 비오는 거리와 사람들-비오는 날의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옷차림등을 관찰해본다.				
자연관계	· 스카프 접기 놀이 - 스카프의 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스카프를 접으면서 기본적인 눈-손의 협응력을 기른다.				
언어관계	· 물감놀이				
자율관계	· 자연의 소리를 들어요 - 날씨변화에 따른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청각적 경험을 가지게 한다. (예:우산에 비 떨어지는 소리) · 소라 껍질을 만져보아요 - 소라의 모양과 감촉을 직접 느껴본다. 소라껍질을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본다.				
기본생활습관	등하원시, 식사·간식시간에 친구와 서로 인사를 나누어요.				

월	단원	교육 목표	소주제	요리	행사	부모교육 자료
3	나의 큰방 [적응과 친애보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어린이집 생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엄마, 생활, 교사, 또래 장난감, 인사, 화장실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편람)	적응 (영아의 잠자기)
4	야! 친해보자 (기쁨과 안정)	친구와 같이하자 (친애보존) 1→3월과 동일 1→ 어린이집의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알고 또래와 친숙해 지도록 돕는다.	또래, 장난감, 블록 크레파스, 계단 내자리, 정리정돈 자원은 내 친구	코코아	신체검사 생일잔치	영아기의 놀이의 중요성
5	안녕! (자기 욕구 표현하기)	마음을 나타내요 (의사 소통) 1→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어휘력을 확장하고 듣기능력을 기른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소리 간단한 말 표현과 동작 사랑해요 내 느낌	말하기, 듣기 이야기하기 페스큐어 가족, 표정 사랑해요 내 느낌	점빵 (빵에 점바르기)	어린이날행사 어머니날 가족사진전 생일잔치
6	궁금하구나! (호기심, 흥미)	☆ 나들이 기회를 통해 바깥환경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다양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주변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관찰과 실험, 동물 식물, 음식, 자동차, 나들이 맛을 보아요	과자선드	소그룹나들이 (자연사 박물관) 생일잔치	영아의 식사지도
7	신나는 물놀이! (안전한 생활)	☆ 물놀이를 통해 신체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을 돕고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	물놀이, 물이 좋아, 빗방울, 여름철 건강, 안전한 생활, 구름, 바람, 해	과일얼음 과자, 미숫가루	과일얼음 과자, 미숫가루	소그룹나들이 (이대 산책) 물놀이, 생일잔치
8	내손가락으로 (자율)	만들어 보자 (조각·성형) 1→ 기본생활기술을 익히고 혼자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다양한 작업을 통하여 조작능력을 기르고 완성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나 식사 용변 옷	가위놀이 풀놀이, 종이 놀이, 점토놀이, 퍼즐맞추기 끼우기	송편빚기	소그룹나들이 (도서관) 개원기념일 (영아신문) 생일잔치
9	바깥에서 (발견, 관찰)	야외놀이를 통해 자연을 느끼고 여러 가지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발견, 관찰해 본다.	자연현상, 곤충, 과일 곡식, 꽃과 나무, 모양	모치 끼우기	모치 끼우기	소그룹나들이 (덕수궁) 생일잔치, 신체검사
10	홍내내기 (역할놀이)	표현놀이 (표현, 감성) 1→ 홍내내기를 통해 표현능력을 기르고 사회성발달을 돕는다. 2→ 다양한 장르와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능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거울 일상용품 사람 엄마, 아빠	동화, 동요 동시 역할놀이 극놀이 감성, 그리기	계란배	부모참여수업 생일잔치 play time 방문
11	말해요 (의사소통 언어발달)	우리 이웃 1→ 2단어 이상으로 말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2→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말하기, 듣기, 제스처, 그림책, 전래동요	추워요,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 직업 가족, 동물	산타행사 생일잔치	
12	혼자서도 잘해요 (독립성, 자율)	일상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다.	옷, 식사, 정리정돈, 배변, 세면, 청결, 나이	※ 요리는 24개월 이상의 영아만 해당됨	생일잔치	
1	이만큼 컸어요	자신의 성장을 기뻐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성장, 할 수 있는 일 언니, 오빠와 놀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혼합연령으로 놀이하기 생일잔치	일상생활 습관점검

• 부모와의 협력 작업

우리 어린이집은 자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영아반 별도의 부모 면담시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협력 작업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검토되었다.

등하원시간에는 얼굴만 잠깐 보고 인사만 하는 정도로 부모와 교사가 모두 바쁜 시간이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로 하였다. 영아의 하루 생활을 가감없이 기록하고(먹은 것, 잠잔 시간, 대변 본 시간, 씻수, 양 등등) 영아의 활동 모습을 적어 귀가 시 가정으로 보내면 부모님이 보고 가정에서도 기록하여 다음날 등원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이 일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기를 쓰면 몇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부모가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다.

둘째, 육아 경험이 없는 초보 부모들이 가정에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일기를 쓰려면 아무래도 대상 영아를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므로 영아의 상태나 발달 정도를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넷째, 기록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일기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쓰도록 했다.

일기의 예> 00년 0월 0일

손가락을 소정아에게 물렸다. 미끄럼틀을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다가 악을 발라주고 테이프로 붙여 주어도 금방 떼어 낸다.

1:00~2:00 1시간 자고는 깨어서 수다를... 시끄러운 현민이. 조금만 더 잘 것이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갠 아이들을 데리고 주방에 놀러 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아는 조현민" 노래에 80먹은 할아버지 경로잔치에 놀러온 듯 어정하지만 힘차게 춤을 춘다. 요플레도 못 먹는 현민이는 약과만 조금 먹었다. 피곤하겠다.

* 12:30/3:00 2회 대변

일기는 주로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담당이 썼는데 매일매일 15명의 일기를 쓴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과 기록표를 만들어 짧게 기록한 후 그것을 참고로 일기를 쓰기도 하였다. (표4 참조)

• 특별한 과제의 해결

영아반의 과제는 "우유병 떼기"와 "기저귀 떼기"다. 취학전반에서 글자 학습이 부모들의 상담을 요청하는 중요한 문제라면 영아반의 부모들은 우유병 떼기와 기저귀 떼기를 심각한 얼굴로 이

	행원~귀가	식사	간식·우유	대변~기저귀	비고	영양발달기록·생활기록
김 빈						
조 준						
최 영						
이 정						
오 오						
문 정						
이 지						
김 수						
최 수						
오 오						
김 수						
이 은						
박 민						
차 준						
백 우						
일 지						
과 도						

야기 한다. 이 두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를 교사들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제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어른들의 행동 통일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부모와도 상담하고 참고 자료 등을 주어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통신문으로 나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마지막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은 여유있고 열린 마음가짐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영아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영아들은 천사의 미소로 교사의 수고에 답해준다. 아직 어린 아기를 타인의 손에 맡기고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을 대할 때도 여유있고 열린 마음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동지외식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하루 일과를 보낼 때 그래도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는 동료 교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인 것 같다.

이 땅의 수퍼우먼 영아교사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보낸다. 화이팅!

자료1 우유병떼기

• 우유병 떼기는 교사 뿐 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유병 때문에 잠투정이 심할 경우 안정감을 찾도록 다른 방법을 써 보는 것이 좋겠다. 한 아이가 우유병을 뗄게 되면 다른 아이도 함께 우유병을 뗄고 싶어할 경우도 있다. 여러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시기에 함께 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한다.

• 우유병을 아직 떼지 못한 이유

- 어머니들이 아이 식사 생김새에 대한 계조를 때문에 (우유로 때문이다?)
- 어린이들이 아이의 고집에 못이겨 우유병을 주는 경우
- 어머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우유병을 주는 경우
- 우유병을 떼면 밥을 잘 안먹으로 영양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안스러워서
- 아이의 잠을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 아이가 우유를 먹은 안먹은 들고 다니게 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 할머니의 과잉보호 ("에, 잡겠다. 우유병에 루지 났을 거야. 그렇게 애를 울리나")
- 공갈 짓까지 대응종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또는 아이의 빠는 욕구)

• 우유병을 늦게까지 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 치아가 썩기 쉽다
- 말이 느려진다
- 입는 것을 싫어한다.
- 의존심이 증가한다.
- 고집이 세어진다.
- 우유병 떼기가 맞배나 더 힘들어 진다.
- 절제하는 법과 우유병 이외의 도구사용을 어렵게 한다.

• 우유병 떼기의 방법

- 잠들기 전에 너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우유병에 보리차를 넣어 준다.
- 우유병 대신 안정감을 주는 물건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
-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게 한다.
- 컵에 병과 같은 납작한 주둥이가 달린 용기를 사용한다.
- 컵을 사용한다.
- 입가에 편한 음식을 주다 차츰 딱딱한 음식으로 전환해 본다. (그러나 이 방법을 공통취사를 하는 어린이집에서 따로 음식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와 아이들 스스로 죽을 싫어한다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 입맛에 적당하고 부드러운 음식 개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2 배변 학습을 위한 유아의 준비

유아가 배변 학습을 위한 준비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발달 단계를 거친다.

- 1) 쉬어 했다 : 첫 번째, 유아는 지금 막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음을 알게 된다.
- 2) 쉬어 한다 : 두 번째, 유아는 지금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된다.
- 3) 쉬어 하고 있다 : 세 번째, 유아는 곧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이 단계들을 거의 만 1세~3세 사이에 나타내며,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 부모는 유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서 유아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쉬어했다

유아에게 배설하게 될 때의 감각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배변 학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유아가 기저귀에 배설했을 때 부모는 유아에게 소변을 보았는지 또는 대변을 보았는지 말해 보게 한다. 유아에게 지금부터는 기저귀를 바꾸고 말할 때 부모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해 준다.

이 때 부모는 유아가 배설하 할 단어를 결정해야 한다. 이 책의 제 2 부에서는 "쉬어", "응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모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유아에게 책을 읽어 줄 때 그 단어로 바꾸어 읽어 주도록 한다. "쉬", "응어", "응어"를 모두 다 적절한 용어이다. 어떤 부모들은 소변보기와 대변 보기를 함께 말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자"라는 말을 하는데, "소변 보기와 대변 보기에 각각 하나씩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인즉 소변과 대변 조절 방법이 서로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 말하는 것이 좋다. 대소변 조절에 대한 단어를 선택하는 기준은 앞으로 몇달 동안 내가 듣고 싶고, 내 아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또래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 번 단어를 선택하였으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같은 내용을 말할 때 다른 여러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가 기저귀에 배설했을 때마다 선택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유아가 기저귀 착신 것을 알게 되면 부모는 "승학이가 쉬어 했구나"라고 말해 준다. 얼마 후에는 "승학이가 응어 했구나. 그렇지?"라고 말한다. 이로써 유아는 배설물이 두 가지가 있고 각각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곧 유아는 "아빠 나 쉬어 했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 쉬어한다

다음 단계에서 유아는 배설작용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o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모는 유아가 대변 보는 도중 긴장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보일 때, "승학이가 쉬어 하고 있구나."라고 말한다. 얼마가 소변을 볼 때 여아에게 "엄마가 쉬어 하고 있다."라고 말해준다. 곧 유아는 "엄마, 나 쉬어 하고 있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 쉬어하고 있다

다음은 세 번째 발달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는 유아가 미리 부모에게 알릴 수 있을 때이다.

◎ 영아가 스스로 배변에 대한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는 괄약근이 충분히 발달 되는 24개월 무렵이므로 발달을 고려하여 배변 상태를 판단하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동강 여름 들살이'를 계획하며...

서은의 · 뜰뜰 방과후 어린이집 교사

올 초 함께 일하는 까마귀 선생님의 제안으로 '동강탐사'라는 거대하고 야무진 계획을 올 상반기 중점 교육활동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변변하게 자연과 온전히 하나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져보지 못했던 나에게 이 계획은 조금은 설렘으로 또 조금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처음 동강 탐사를 계획할 때는 동강 주변의 생태 탐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방과후 일상생활과 7월 동강 탐사가 연관지어질 수 있도록 2주일에 한 번 정도, 방과후 2,3,4학년 아이들은 주변의 양재천과 관악산 일대의 생태 탐사를 꾸준히 해왔다. 사전답사 활동을 하면서 동강탐사의 무게중심이 '생태탐사'에서 아이들의 '생활'로 조금 이동을 했으나 광상시 산과 개울에서 아이들이 식물과 곤충들에 대해 보여 주었던 호기심과 관찰력은 이후 동강 주변을 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7월, 동강으로의 여름 들살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방과후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활동들을 해 왔다. 3월과 4월 초 두번에 걸쳐 까마귀선생님이 홀로 사전 답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다녀왔고, 4월 24일(토요일) 2,3,4학년 11명과 교사 2명이 1박2일 코스로 동강 1차 답사를 다녀왔고, 5월 23일(금요일)에는 2박3일의 코스로 동강 2차 답사를 다녀왔다. 1차 때는 동강 상류지역인 가수리와 운치리 일대를 둘러 보았고 고성산성과 단종 관련 유적지를 돌아 보았다. 동강 주변지역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때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2차 때는 나뭇배를 타고 연포에 들어가 백룡산장 전까지 강을 따라 걸으며 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도 하고 물놀이도 하였다. 연포에는 예미 연포 분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곳에는 3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발하며 떠있는 수 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 찾기도 하고 귀신 놀이도 했다. 귀신놀이는 동강에서 한 어떤 놀이보다도 아이들을 흥분시켰다.

이 두번의 사전답사를 근거로 7월말에 1~4학년 21명이 동강으로 여름 들살이를 가려고 한다. 두 번의 사전 답사를 통해 단련(?)된 누나, 형들이 동생들을 이끌고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아영을 하며 동강을 탐사해 보려고 한다. 여러 번의 답사를 통해 동강탐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첫째, 아이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 준다.

둘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셋째, 아름다운 '동강'의 모습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동강' 주변의 동·식물, 곤충 등을 주의깊게 살펴 본다.

다섯째, 자연을 보호, 보존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경험으로 느껴보도록 한다.

요즘, 신문을 보니 동강 주변이 밤낮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걱정이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번 들살이가 이런 관광객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담감이 요즘 부쩍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가 세운 작은 목표들이 4박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동강탐사 보고서) <그림>

기간: 7월 28~30일 까지
목적: 아동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동강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탐사: 연포 분교 예미 연포 분교, 동강, 산골 민박집, 물리
인원: 까마귀, 화술, 다현, 정, 지현, 준현
현장: 동강에서 수변도로, 산길 민박집에서 차고, 모퉁이를 돌고 한
민박집 앞 저기에는 동강이 흐르고 계곡이 깊었다.
정리: 금요일 도착하기 전에 동강을 출발했다. 1박2일 동안 민박집에서 쉬었다. 동강에서 놀았다. 타고, 수영도 했다. 강기를
划을 때 물과 건물이 보였다. 배가 흔들려서 겁이 났다. 도망쳐
산악기대 오고갈 때 마다 물이 많은 날 아침 제곡에서
용암에서 돌고, 계곡을 잡았다. 대를 아꼈는데, 정말 아쉬웠다.
논밭, 다음날은 (산악기대) 산악기대 가려고 했다. 내려왔다
그러고 수변도로 물길을 팔고 계곡 가려고 했다.

동강 탐사 보고서

- ① 답사 시 숙·동강에서 어떤 곳인지 직접 가서 본다.
• 동강 주변의 유적지를 본다
- ② 답사기간: 1999년 7월 24일~ 4월 25일 ③ 답사인원: 상현, 준현, 지현, 구하영, 종경, 석우, 다진, 9명, 슬, 까마귀, 무궁화.
- ④ 답사관: 광원도 명원로에서 선을 보았다. 모양: 
- 가수리분교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 과 친구들을 만나려고 갔다. 걸가서 된 것을 관찰했다.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동강에서 계곡을 잡으러 갔다.
- 삼국시대 때 만든 고성산성에 갔다. 거기에 올라가서 놀았다.
• 단종이 유배되어 살았던 청령포에 갔다. 청령포에는 단종이 거뒀을 때 올라가서 얘기 했던 관음종각에 소나무가 있어 그 이름 우리는 단종의 무덤인 장릉에 갔다.
- ⑤ 다녀와서: 계곡길을 잡아서 놀았다. - 물기가 많아서 기분이 좋았다. - 다음엔 두꺼비 문패를 가져가야겠다. 잘때 너무 추웠다. 최준현 (국립초등 2학년)



2차 교사재교육을 마치고 -그래, 이 맛이야!

이미애 · 부산보육교사회

3월 마지막 날, 99년 1차 교사재교육을 마치고 한숨 쉴 틈도 없더니 웬걸 벌써 2차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주제도 정하지 못했는데 6월로 예정된 교육 날짜를 잡고 보니 교육부가 모일 수 있는 기회는 2번 남았다. 마음은 조급한데 앞에 산이 가로 막힌 느낌!

뭘 해야할까? 어떤 내용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교육부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지만 떠오르는 건 별로 없고.....

술방울 샘이 요리를 해보잔다. 요리라... 너무 내용이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재미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교육 내용이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모아졌다. 무엇보다도 교육 뒤에 직접 만든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잔치마당도 가질 수 있으니, 하루일과를 마치고 동시에 집에 가기 바쁜 회원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매력이었다.

주제를 요리로 정한 후엔 요리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린이집에서의 요리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리활동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일까? 등등의 얘기가 이루어졌다.

아이들과의 요리활동이 우리 부산보육교사회 소속 어린이집들에서는 자주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1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곳도 있었다.) 그것이 하루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행사에 그쳤고 교사들에게는 불이나, 칼 등의 위험 때문에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하는 활동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과의 요리활동이 가져야 할 목표를 정의하고 그 진행과정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을 2차 교사재교육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고 교육 당일날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준비물은 누가 챙길 것인지도 정해졌다.

마침내 6월 2일 수요일 맛있는 것 먹으러 오라며 열심히 선전했는데 비가 주룩주룩! 참여율을 걱정하며 오늘의 요리 - 두부, 두부과자, 인절미의 요리과정을 설명한 그림들을 벽에 붙이고, 까치샘이 아침부터 불러 놓은 참쌀을 채반에 받치고 물에 불은 콩깍질을 벗겼다.

20명 남짓 모인 것이 8시 30분쯤, 술방울 샘이 아이들과 직접해 본 '녹두전 요리'의 사례발표를 하였다.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으로 나누어 나흘 동안의 진행과정과 결과물들을 발표한 후 조별로 토론을 거쳐 각 요리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안을 짜도록 했다.

1차 재교육 때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인쇄물에 표시된 암호를 보고 회원들은 별 어수선했 없이 두부조, 두부과자조, 인절미조로 나뉘어졌다. 회원들이 계획안을 짜는 동안 교육부원들은 다시 한번 재료와 도구 등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엄마를 따라 온 감산, 누리, 유신이는 벌써부터 참쌀을 콩콩 찧으며 인절미를 만든다고 난리다.

9시쯤 각조별로 요리가 시작되었다. 참쌀이 너무 질다느니, 이 요리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느니, 두부과자는 맥주 안주하면 좋겠다느니 하며 시끌벅적하다. 어린이집에서도 해봐야겠다며 비싼 검정깨와 간수 등을 챙기는 열성과 회원, 계속 짓기만 해서 별 재미가 없어 보이던 두부가 찐! 하고 나타나자 서로 한조각 먹어보겠다고 하는 등 모두 즐거워 보였다.

정작 마무리 시간에는 그때까지도 뛰쳐내고 있던 두부과자 두 접시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만족감과 경이감(거의 두부 때문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려 할 수 있겠냐는 나의 의구심에 대해 집에서 직접 시험까지 해가며 두부요리를 하자고 밀어부쳤던 까치샘의 독심에 존경을 표한다.)에 찬 표정으로 조별로 작성한 교육계획안을 발표하고 실제 요리를 해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재미와 개선점 등을 이야기했다.

회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좋았다. 아이들과 해보기에 업무도 내기 힘들었던 요리, 특히 전통요리에 대한 접이 없어졌다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요리활동이 교사재교육 내용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평가에는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에 비해 꽤 괜찮았던 교육, 고생한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도 다음 교사재교육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온다.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교육부의 첫번째 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원 3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분기별로 1번씩 있는 교사재교육 뿐 아니라 여러 교육이나 자료집 발간 등의 일을 적은 인원으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해야할 것 같다.

부모 상담기법 강연을 듣고

권미정 · 서울 북부지회, 한미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나에게는 부모들을 만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것 만큼 부담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항상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왔던 터에 이번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연은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을 통한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 상담을 위한 준비 등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지식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화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강의 내용을 들을 때는 내 모습은 어떤 유형에 속할 지, 가장 바람직한 대화 방법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난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며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 저런 면까지도 세심히 고려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바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 3학년때 학생생활 연구소라는 학교 기관을 통해 교육심리학과 대학원생의 한 case가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엔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검사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는 꼬리의 꼬리를 물고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주중 일정한 시간에 만나 서너달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때로는 상담의 전 내용을 녹음하기도 해서 내가 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내 성격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반, 거부감도 반이었지만 여하튼 나만을 위해 전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을 내주는 한 사람에 대해 고마워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우리 반을 책임지고 있는 나에게 내담자가 아닌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 사뭇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학교 때 상담시 경험했던 것을 더듬어 보면 기관에서의 학부모 상담 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런 한가지 대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우리반 학부모로부터 걱정스런 몇자의 글과 상담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상담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일정으로 잡은 정기 상담이 아닌 특별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상담은 더욱 나에게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하지만 항상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면 뭔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단순히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마음의 한 짐을 덜은 듯한 느낌은 나에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부모의 모습이 다양하듯 그들을 대하는 교사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 그러기에 상담시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담기술이야말로 그런 다양성 속에서의 적절한 합의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생활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의 부모 상담 기술의 방법이 쌓여가겠지만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연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적어볼까 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쉽게 잊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상담시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든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점보다 그 아동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 재교육을 마치고

이경미 · 인천, 예슬어린이집

언제나 교사에게 있어서 재교육이란 산뜻한(적어도 내게 있어선) 것이다. 아이들과의 일상에 묻혀 있다보면 진정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기 일쑤고 활력을 얻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으니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의 재교육은 정말 재미도 있고, 부담도 없으며, 말하고 듣기 좋아하는 나로선 군침이 돌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는 다소 상관이 없는 듯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인천지부 자체 내에서 끌어내진 못하고 인천지역 '노동사목'이란 단체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투입(?)되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많이 이야기 하고, 많이 들어주고'

어쩔 모르는 이들과 같이 했기에 의식 하지 않고 속내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모른다.(같이 한 선생님들과는 각기 다른 조였음)

모임의 주제는 '선택'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이라는 두 번째 모임에서는 선택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라는 세 번째 모임에서는 진정한 대화와 경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임은 1박을 하며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수박의 겉만 핏자서는 그 맛을 모른다. 4회의 모임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그 맛을 보여 주기엔 내가 너무 벅차고 설렘 풀어 재깎다 해도 함께 하지 않은 이는 진정한 그 맛을 모를 수 밖에 없다.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정도로만 하고 그래도 글.이라고 내는 건데 유난히 내 인상에 깊었던 특별한 한쪽 민을 확실하게 그 맛을 보여주려 한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속함'이란 생소한(처음엔) 단어의 매력에 끌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인상이 깊다. '속함'이란 속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은 나와 애정으로 결합되어져 그 사람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소한 일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생소한에서 오는 느낌과는 다르게 내용을 보니 그다지 생소하지도 않다라는 것이 나의 느낌이었지만 잊고 지내왔고 자각하지 못했으므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다른 이들 속에서의 그들과의 관계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다지 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했을 때 진정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다라는 것이 이 주제의 결정판이고 내 정리의 맺음이다. 내가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부분만 정확히 터득한다면, 터득할 수 있다면 밝은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 말이다. 내맛도 니맛도 아닌 물맛이면 어찌지...

글을 읽으신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손톱 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강화도의 임정숙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편집부

지난 겨울 20대를 마감하고 30으로 넘어서며 언제까지 내가 보육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나질 않았었다. 아마 20대에 열심히 살았지만 현재의 바쁨을 핑계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그러던 중 1월에 남부지회의 겨울 수련회를 강화도의 휴집으로 다녀왔다. 아트막한 산 초입에 있는 휴집은 다름 아닌 임정숙 선생님이 새로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다. 예전 지탁연 시절 인천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선생님은 얼굴이나 몸매로 보면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곳을 방문한 어떤 아줌마는 2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정숙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 좋을 허풍(?)까지 할 정도로 젊어 보였다. 1박을 하며 조심스레 물어 본 선생님의 나이가 40대라는 얘기에 그 밤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의 40대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햇빛 내리쬐는 여름에 나는 다시 강화도를 방문했다.

임정숙 선생님이 처음 아이들과 만난 것은 스물 한살 겨울이었다. 사당동의 판자집(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에서 신부님을 따라 미사를 드리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새싹들의 방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새싹들의 방에서 일하던 중 세쌍둥이가 물에 타 죽는 사건이 세상을 슬프게 했고 그 아이들의 추모를 시작으로 세쌍둥이 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했다. 세쌍둥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기발한 수익 사업을 벌여 나가기도 했다. 일일 삼계탕집, 꼬까 머리방(선생님은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학원에서는 우등생이었다.) 등의 수익사업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며 세쌍둥이 어린이집이 안정이 되어갔다.

그 후 세쌍둥이를 그만 둔 선생님은 세화복지관에서 놀이방 교사로 다시 보육활동을 시작했다. 2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작은 놀이방을 점차 내실있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갈 즈음 복지관 관장의 비리가 심해지고 마수의 손길(?)이 자신에게도 뻗치자 당장 그 곳을 그만 두었다.

복지관을 함께 그만둔 남편(김정택 목사)은 귀농을 준비하며 1년 정도 농사를 배웠고, 2년정도의 힘을 가진 후 임정숙 선생님과 지금의 강화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는 오리 농법으로 벼 농사를 짓고, 보통의 양계장에서 폐닭 판정(?)을 받은 닭-이런 폐닭은 통닭이 되거나 그 외 요리용 생닭으로 팔린다. 선생님 덕으로 오게 된 폐닭들은 처음에는 병든 닭처럼 며칠 동안 닭장 밖에 풀어

나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조금씩 자연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내가 언제 폐 닭이었냐는 듯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들을 데려와 산에 천막을 치고 돌아 다니며 벌레도 잡아먹게 하고, 인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쥐 환경 문제 극복,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유정란을 제공하며, 닭들을 그야말로 옛날 농촌의 집닭처럼 키우는 등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자연속에서 살아 숨쉬는 흙집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짓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선생님은 감독(?)을 했지만 안일하게 집짓는 모습이 탐탁지 않아 선생님이 손수 흙담 하나하나를 쌓았다고 한다. 물론 옆에서 남편이 도와주었고.

임정숙 선생님이 만든 그 흙집은 주간 보육시설로(일종의 24시간 보육 시설) 어렵고 보호자가 불안정한 아이들을 푸근한 자연속에서 안정적으로 보호, 교육하기 위해 만든 집이기에 붉은 흙벽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지낼 공간이기에 여기저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배려가 보였다. 그래서 탐방 취재를 갔던 나에게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아 조금은 곤혹스럽기도 했다. 마음 곳곳에 상처 입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다시 건강하게 뛰놀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반가웠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공검사에 통과되지 않아 아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강화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준공검사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안타까웠다.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 강화도에는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사람들 먹에 여러가지 오염 문제가 심해 -특히 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강화도에서 전원주택에 대한 허가를 못 내도록 민원을 넣은 것이고 그 전원 주택들에 흙집이 포함되 버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웃으며 조금 골치 아프지만 곧 좋아질거라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오갈 데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잠시 이 곳에서 쉬어 가겠다는데 이런

행정상의 문제로 그 아이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방황해야 하나 싶었다. 이럴 땐 우리 어른들의 단순하지 못함이 너무 넘쳐난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40을 공자는 '不惑의 나이'라 했는가? 이것 저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 만의 것을 완성해가는 나이라는 의미겠지. 그러나 한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40의 인생에 안주하기는 커녕 남들이 보기에 사서 고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으로 가면서도 행복해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래서 한결 젊어 보이는 모양이다. 나도 이 젊음을 유지 하려면 사서 고생해야 하나?

임정숙 선생님을 만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보육인생 얘기를 듣고 - 지면이 짧고 내 표현력의 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 지금 40의 나이에 새로 꿈꾸는 또 하나의 보육인생을 엿보며 내가 흔들릴 때에는 강화행 버스를 타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 강화도를 갈 때에는 흙집 어린이집(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의 개원 잔치에 꽃다발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정숙 선생님 힘내세요.



학동 전기의 영양 특성

고시환 · 홍은소아과 소아과 전문의 원장
서현정 · 영양 상담원(영양사)

학동 전기의 아이들은 혼자 먹는 방법을 배우고, 식습관과 식품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열아기때처럼 성장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성장 특성이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요즘 맛별이 부부가 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유아보육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집에서 보다도 유아보육기관에서 식생활 양식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아기들에게 올바른 영양상식과 식습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보통 씹기 쉽고, 단맛이 많이 나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과,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등을 좋아하고, 향이 강한 채소인 양파나 과를 싫어하고 질감이 단단한 육류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질감이 단단한 것은 부드럽게 조리하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작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들이 잘 먹지 않는다고 못아다니면서 먹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에게도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칼로리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아기들은 녹색채 채소, 특히 향이 강한 파, 양파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채소에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식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서라도 이것저것 모두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강요한다면 아기들의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끼니	
아침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2조각 말기잼, 우유 1컵
점심	캘리포니아롤, 미소 장국 키위쥬스 1컵



아기들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공급원으로는 육류, 난류, 두류 및 유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열량원으로써도 좋은 식품들입니다. 하루에 우유를 2~3컵 정도는 마셔주는 것이 좋고, 육류는 300g, 난류는 달걀 1개 정도, 두류는 두부 10g 정도면 좋습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함으로써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물질이긴 하지만 미량이 필요하므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결핍증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채소를 잘 먹지 않는데, 비타민은 채소나 과일에 다량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먹지 않는다면, 즙을 내서 쥬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김밥이나 유부초밥에 다져서 넣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칼슘은 골격 형성과 치아 형성, 혈액 응고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나라 식탁을 보면 칼슘이 결핍될 수 있는 식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아이들에게 꼭 공급해주어야만 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멸치에 상당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미원이나 다른 조미료를 쓰는 대신 멸치를 갈아서 조미료 대용으로 쓰는 방법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대부분 아이가 먹는 식단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단위 체중당 에너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끼의 식사 외에도 간식으로써 충분한 열량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질이 농축된 사탕, 초콜렛, 지방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편식을 많이 하고, 또 그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까지의 식습관으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왜 편식을 하는지(예를 들어, 야채 같은 경우 향이 싫다거나, 질감이 싫다는 등) 이유를 알아내어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과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올바른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집에서는 아이가 사용하는 식기는 아이 것으로만 따로 마련해 주어 아이가 먹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주는 것은 아이에게 더욱 그 음식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식품으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에 섞어서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소아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아이들을 단체로 급식하는 경우 간식을 과자나 케이크와 같은 고당질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비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지나치게 고당질 음식이나 단 음식의 섭취는 제한해 주고, 케이크이나 과자 대신 떡으로 대체를 하고, 과일과 우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서 그 식품은 섭취를 제한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은 달걀, 우유, 대두, 시금치나 복숭아 등으로 이런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하지 않게 하며, 되도록 날 것 보다도 신선한 재질 재료를 선택해,

충분히 조리를 해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들을 많이 돌봐야 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는 자칫 아이들의 영양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아기관에서 아이들 개개인의 식습관 형성에 큰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간식이나 급식시간에는 선생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단 예

끼니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씨리얼 우유 야채샐러드	야채스프 토스트 오렌지쥬스	옥수수스프 오렌지감자 샐러드우유	연두부 양념장 우유	참치샐러드 샌드위치 우유	햄, 치즈샌드 위치 우유	씨리얼 우유
간식		수박	토마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포도 고형요구르트	자두 요구르트	수박	참외
점심		잡채밥 감자무국 김치	오므라이스 미소된장국 김치	김밥 어묵국 김치	돈까스 콩나물맑은국 무생채	유부초밥 미소된장국 단무지	스파게티 야채샐러드 오이피클	장국국수 뱅어포구이 열무김치
간식		감자크로켓 우유	참깨부꾸미 우유	편육수수 미숫가루	전감자 우유	식빵조각피자 우유	만두 우유	양배추떡볶이 우유
저녁		보리밥 유부달걀국 불고기 멸치조림 김구이 오이지	현미밥 두부찌개 쇠고기야채볶음 콘샐러드 뱅어포구이 김치	콩밥 실과계란국 고등어조림 팽이버섯볶음 오이생채 김치	보리밥 미역국 가자미구이 시금치나물 콩자반 김치	현미밥 콩나물 맑은국 계란찜 당근, 양파볶음 콩나물 김치	완두콩밥 오이냉국 달걀말이 호박전 김치	카레라이스 미역냉국 열무김치



야채 먹고 싶은 사람 모여라.

편집부

여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사나 아이나 식사 시간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게다가 다이어트 신이라는 과물이 더욱 음식의 맛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상을 벗어나 재미있는 소동을 기다리는 교사와 아이들에게 하는 특별한 제안 - 야채 먹고 싶은 사람 모여라-를 소개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요리는 요리책에서 응용하거나 실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요리 활동을 했던 것 중에서 신선한 여름 채소를 이용한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1.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여름 간식

얼굴은 희끗희끗, 손발은 끈적끈적, 바닥은 아수라장. 그래도 신나는 요리 시간. 아이들은 어느새 생기있게 살아납니다.

시원시원 물만두

재료 : 쇠고기 다진 것, 호박, 오이, 국멸치, 파, 마늘, 참기름, 다시마, 간장, 소금, 깨소금, 후추, 만두피

만들기

[장국]

끓는 물에 멸치, 파, 마늘(가능한 통째로), 다시마를 넣고 푹 끓인 후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차게 식혀 놓는다.

[만두]

- ① 쇠고기 다진 것은 소금, 참기름, 깨소금으로 양념하여 볶는다.
- ② 오이와 호박은 각각 곱게 다져 소금에 약간 절여 짠 후 다진 쇠고기, 마늘, 파와 합쳐 소금과 깨소금, 후추로 간을 하여 볶아 만두소를 완성한다.
- ③ 만두피에 소를 한 숟가락 떠 넣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다.
- ④ 찜통에 젖은 행주를 깔고 찌거나 끓는 물에 삶아낸 후 식힌다.

완성한 만두에 차게 식힌 장국을 자작하게 부어 먹는다.



바삭바삭 만두과자

재료 : 감자 또는 고구마, 옥수수, 계피가루, 설탕, 물엿, 만두피, 식용유

만들기

[만두소]

감자(고구마)는 작게 깍둑 썰어 약간의 식용유에 볶다가 설탕, 물엿을 넣고 푹 익힌 후 약간의 계피가루를 뿌려 버무려 놓는다.

옥수수는 물에 삶아(삶는 물에 소금간을 한다) 알갱이를 떼어 내 버터에 볶는다.

[만두]

- ① 만두피 위에 원하는 만두소를 놓고 다른 만두피를 덮은 후 포크로 테두리를 둘러가며 구멍을 뚫어준다(두 개의 만두피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두피 둘레에 약간의 물을 발라준다). 가위 집을 넣어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 ② 완성된 만두를 기름에 튀겨 낸다.
- ③ 시원한 생과일 주스와 함께 먹는다.

생생 냉냉 샌드위치

재료 : 아이스크림, 식빵, 오이, 단단한 복숭아

만들기

- ① 오이와 복숭아는 곱게 채를 친다.
- ② 식빵 위에 오이와 복숭아를 얹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후 식빵을 둥그렇게 말아서 먹으면 끝.

2. 색다른 맛을 느껴 보세요.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고 마음도, 얼굴도 예쁜 우리 선생님이 신기한 요리도 한다면..... 그 날 아이들 인기는 꼭 잡았습니다.

매콤달콤 두부 강정

재료 : 두부, 전분가루, 소금, 후추, 양념장(고추장, 토마토 케첩, 설탕, 깨, 참기름, 다진 파, 마늘, 물엿), 식용유

만들기

- ① 두부를 물에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앤다.
- ② 물기 빠진 두부를 깍둑썰기로 썰은 후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둔다.
- ③ 양념장을 걸쭉하게 만들어 살짝 볶는다. 단, 너무 맵지 않게 한다.
- ④ 간이 밴 두부에 전분가루를 뿌려 옷을 입힌 후 기름에 튀겨 낸다.
- ⑤ 튀긴 두부에 양념장을 버무린다.

완성된 두부 강정은 아이들과 불러 앉아 수박이나 참외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다.

또는 탕수육 소스를 얹어 먹으면 탕수두부가 되기도 한다.

보들보들 노릇노릇 가지전

재료 : 가지, 밀가루, 달걀, 식용유, 소금

만들기

- ① 가지는 적당한 두께-보통 호박전 정도-로 썰어 약간의 소금을 뿌려 간을 한다.
- ② 간이 밴 가지에 밀가루를 묻혀 달걀옷을 입힌



여름의 영양과
어린이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낸다.

보통 가지요리는 씹히는 질감이 몽글몽글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가지전은 단단하기와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져 아이들이 먹기에 적당하다.

양배추 돈가스

재료 : 돼지고기(보통 돈가스 용보다 얇게 썬 것), 양배추, 양파, 밀가루, 빵가루, 소금, 후추, 달걀, 식용유

만들기

- ① 돼지고기는 칼등으로 적당하게 저민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둔다.
- ② 양배추와 양파는 채썰어 볶는다. 물론 약간의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 ③ 돼지고기를 펼친 후 한 쪽에 볶은 양파와 양배추를 얹고 덮는다.
- ④ 야채를 감싼 돼지고기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의 순으로 튀김 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 낸다.

3. 교사를 위한 별미

상큼 씹싸름 김밥

재료 : 기본 재료+ 갯잎, 오이, 무순, 단무지, 김, 치즈 또는 달걀 지단

밥을 위한 재료 - 소금, 다시마, 설탕, 식초

만들기

[밥]

- ① 먼저 다시마를 물에 끓인다
 - ② 쌀을 씻어 끓인 다시마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밥을 짓는다.
- 단, 다시마물이 없을 경우 다 지어진 밥에 소금, 설탕, 식초를 섞은 물을 약간 붓고 버무리 간을 한다.

[김밥 속]

- ① 오이와 단무지는 채를 썰어 놓고 무순은 깨끗이 씻어 놓는다.
- ② 갯잎은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따 놓는다.

[김밥싸기]

- ① 김 위에 밥을 펼친 후 갯잎과 치즈를 얹고 그 위에 준비된 야채를 놓고 둥글게 만든다.
- ②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참치 갯잎쌈

재료 : 갯잎, 양파, 당근, 오이, 참치, 무순, 간장, 양념장(고추냉이·일명 와사비 + 간장)

만들기

- ① 양파를 다져 참치, 마요네즈와 골고루 섞는다.
- ② 당근, 오이는 채를 친다.
- ③ 갯잎 위에 참치를 놓고 양파, 오이, 당근, 무순 등을 얹은 후 둥글게 만든다.
- ④ 완성한 갯잎쌈을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예전의 거렁 어린이집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이야기 하나-비밀은 먹는 것?

효빈 : 선생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교사 : 응~, 비밀인데.
효빈 : (눈을 동그렇게 뜨며) 비밀이요?
교사 : 그래 비밀이야.
효빈 : (충청스러 웃으며) 선생님, 나 비밀 먹고 싶다.
교사 : ???

비밀은 맛있다?

간식으로 옥수수알 튀김과 쿼스를 주었다.
효빈 : 선생님 이게 간식이에요?
교사 : 네, 맛있게 먹으세요.
모두 : 네.
효빈 : (간식을 다 먹은 후 큰소리로)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교사 가까이로 와 조그만 소리로) 선생님 비밀 맛있었어요.
교사 : (뛰는 줄 위에 나는 줄 있더니 나보다 한 수 위네)

● 이야기 둘-망개

참치시간
경호 : 와- 말채다! 선생님, 말채는 바다에서 살지요?
교사 : 네, 말채는 바다에서 사는데 물에 끓으니까 꼭꼭 씹어 먹으세요.
경호 : (눈을 동그렇게 뜨고) 선생님!
교사 : 왜 그러니?
경호 : 말채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교사 : ???

망개2

반찬으로 말채 볶음이 나온 날.
경호 : 선생님, 말채 볶음이에요?
교사 : 네.
경호 : 선생님, 경호 말채 먹으면 톨톨해지지요?
교사 : 그러~엄, 그러니 많이 먹으세요.
경호 : 근데 선생님, 말채가 경호 보고 웃어요.
교사 : ???

● 이야기 셋-ing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면 어느날, 달님반 친구들을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갔다 오다 아이들 준다고 아이스크림 사 왔다. 그런데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 준비시키다 보니 아이들에게 주질 못 했다.
지은 : 선생님, 아이스크림 왜 안줘요?
교사 : 응, 집에 갈 때 즐거야. 기다려.
지은 : 선생님, 나 집에 가는 중이에요.
교사 : (아걸 뛰, 말어?)

상교육

최근 남동생(만석)을 본 지은이와 할머니의 대화.
할머니 : (만석이 용경을 보여 주면서) 지은아, 너는 이런 거 없지?
지은 : 나도 있어.
할머니 : 난 여자잖아.
지은 : 맞아, 근데 나도 고추 있어.
할머니 : 여자는 고추가 없는데, 남자만 있는데.
지은 : 아냐, 여자는 고추가 안에 들어있어. 뽕! (엄마를 보며) 엄마, 맞지.
엄마 : 그래, 훌륭한 보육교사 딸이다.

● 이야기 넷-우는 이유1

갑자기 충실한 해지는 잘 못다.
'물리'비디오를 보고 있던 해지가 또 울다.
교사 : 해지야, 왜 우니?
해지 : 슬퍼요, 영-영
교사 : 뭐가 슬픈데?
해지 : 물리 엄마가 없어요.
교사 : !!!

우는 이유2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날, 해지는 아침에 오면서부터 울었다.
교사 : 해지야, 왜 우니?
해지 : 슬퍼서요, 영-영-영
교사 : 또 뭐가 슬픈데?
해지 : 비가 오니까 슬퍼요.
교사 : !!!

● 이야기 다섯 - 남자는 다 똑같애!

집에서 엄마와 놀고 있던 경호, 엄마가 묶은 머리카락을 보더니
경호 : 엄마, 이거 예쁘다. 나 뭐.
엄마 : 엄마가 하나 예쁘지?
경호 : 응, 근데 나뉘.
엄마 : 엄마 머리가 내려오니까 엄마 해야지, 왜 달래?
경호 : 응, 지민이가 줄려고
엄마 : 왜 지민이를 줘?
경호 : 지민이가 예쁘니까.
엄마 : (배신감에 기분이 상하지만 꼭 참으며) 너, 엄마가 예뻐, 지민이가 예뻐?
경호 : 응, 지민이가 더 예뻐.
엄마 : (악이 풀려) 엄마 화났어, 지민이가 뭐가 예쁘니?
경호 : 응, 지민인 머리도 파마하고 치마도 입고 똑같이도 하고 예뻐.
엄마 : (휴, 너도 남자구나!)



도리도리 짹짹

고영미 · 근로복지공단 안산 어린이집

글 김세희/그림 유애로/보림/8500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면서 좋은 엄마 되기 무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저보다 먼저 엄마가 되신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지난 1년 붙이켜 생각하면 휴~(한숨한 번 쉬고). 벌써!!(감탄사 한번 하고)

명색이 예미가 보육교사인데도 왜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영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저로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뭘 해주어야 하는지? 무슨 노래, 무슨 놀이를 해 주는지 답답할 때가 많았죠.

외국 자장가, 현대 동요, 외국 장난감, 외국 그림책...

아이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전통적인 우리식 아이 키우기가 분명 있는데 물어볼 곳도 없고 배울 곳도 없었죠. 그런데 저번달 서점에서 이 책을 봤어요. 너무 반가웠죠. 반면 안타까움도 대단했어요. (이제 나오면 어떡해! 벌써 커버린 걸!)

책장을 넘기면 바다와 하늘이 쌍둥이를 둔 부부가 아이들과 놀면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부드러운 그림, 구석구석 아기에게 필요한 여러 물건들도 빠짐없이 그려져 있는 섬세함도 있었구요. 계절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늘어랑 바다(주인공) 얼굴이랑 몸통이랑 손가락, 발가락 다 맘에 들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 아니까요.

2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감각과 운동 발달을 도울 수 있게 놀이와 노래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어서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과학적인 수가?' 그림책을 통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선물해줄 사람들 얼굴이 딱 스킨네요. 우리것이 비과학적이니, 비논리적이니, 체계적이지 못해 산만하다느니 하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겼어요.

사람이 듬뿍 담겨있는 책이에요. 꼭 보세요.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그림책 뒷편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어랑 바다랑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너희는 좋겠다, 사랑스런 엄마랑 아빠가 있어서."

-유애로 선생님, 김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탄생!

김지희 · 서울남부지회

짹짹라잔~~~~ 짹짹 짹짹라잔~~~~!

드디어, 탄생!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축합시다.

연혁, 회장단, 지부, 지회, 기구, 선언문 등 한국보육교사회에 대한 소개,
보육행정 및 본 회의 정책제안 등으로 꾸며진 보육정책,
교사들의 연구물로 꾸며진 교육제안, 어린이건강, 특수보육 등의 현장교육,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 목차 및 정책, 교육,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발간자료,
등등등...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 산하의 중물, 여행, 그림책, 등의 작은 모임들을 소개하고
활동내용을 알려내는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금(?)과 족소를 자아내는 아이들의 세계 엿보기 코너 - 아이들
의 세상만물기와 본회 교육센터의 교육강좌를 안내하는 교육센터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우리 알리기,
이제 열린 우리들의 마당에서 자알~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dta.or.kr>
<http://www.jinbo.net/~kdta>
<http://kdta.jinbo.net> 입니다.

세상읽기

씨랜드수련원 화재발생으로 죽은 어린 영혼들에게

주예민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교사

6월 30일
그렇게 6월의 마지막 밤은 지나갔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늪으로
홀짝 재가 되어 날아갔지.

풍당풍당 설레이던 한여름밤은
조잘조잘 어둠속의 속삭임은
한 낮의 밝은 빛 해맑음을 모두
우리곁에서 빼앗고

부끄러운 어른들의 탐욕은
아이들의 절규를 묻어버리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지.
공포와 고통의 어둠속에서
너를 방치한
더러운 탐욕의 캄프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밤하늘 해집고
이글거리는 캄프파이어
너희를 재물로
치워진 더러운 축제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너를 보낸 그날 아침이 후회스러운데...
누구를 불붙고 원망한들
가슴속에 묻어둔 어린 너
다시 돌아올 수 없는걸.

세상은 그래도
정말 그래도
아름답다고 말한 나를
용서해다오. 아가야!

제발
부디
탐욕이 들끓는 세상엔
다시 태어나지 말거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이 가거라

謹 弔

씨랜드수련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과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교사의 영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맛벌이 엄마의 가슴 아픈 이유

박미라 · 서울 북부 '우리어린이집' 자모도우리

불쾌아이를 낳고 3개월만에 출근을 했다. 그 때 가장 섭섭했던 일이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회수는 첫째 회경이와는 달리 엄마젖을 먹을 복이 별로 없었나 보다. 태어나자마자 황달과 잠 이상 때문에 2주 이상 입원을 해 있었고, 퇴원해서 어렵게 엄마 젖에 적응하고 나니 다시 분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회수가 엄마젖을 제대로 먹은 기간은 한달하고 보름쯤 될까?

나도 나이가 먹어서인지 젖이 첫째때 만큼 잘 나오질 않았다. 특히 아이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젖은 서서히 말라갔다. 그걸 다시 나오게 하느라고 한약에다 쪽발에다 별걸 다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를 떼놓고 나오는 날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다. 특히 불어오는 가슴이 더욱 아이 생각이 나도록 만들었다. 나는 직장 내의 화장실에서 틈틈이 젖을 짜냈다(참고로 말하면 나는 악을 먹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젖을 말리는 법을 안다. 보통 엄마들은 가슴을

고통스럽게 좌 통여매고, 악을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모유량이 무척 많았지만 젖이 불어 아플 만하면 축유기로 그냥 짜냈다. 젖은 적게 빨면 빨수록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축유기로 조금씩 짜내면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다. 그리고 틈틈이 냉동실에서 얼렸던 음료캔을 가슴에 대고 냉찜질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젖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고 보면 아이에게 젖을 주는 일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나 보다. 그랬다. 회경이를 9-10개월쯤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 젖을 주던 기억만큼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 땐 물론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일들을 고통스럽게 여겼었다.

도대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다 그냥 주저앉는 건 아닐까? 남들은 모두 내 나이에 자리잡는데 나는 뭘까? 등등.... 그래서 젖 주는 일도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쇠사슬 같게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육아일기

정말 모유 수유는 그 점에서 치명적이다. 젖을 먹이는 기간만큼은 엄마가 꼼짝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 때가 초보 엄마들에겐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인가? 보다 즐겁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선 아이와 떨어져 완전히 이완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젖을 먹이면 그럴 수가 없다. 자연히 육아에 남편을 동참시키는 일도 어려워진다(또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즉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엄마는 살짝 없어지는 것도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있어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젖 주던 기억만큼은 참 행복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둘째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젖을 주고 싶었다. 분유로 바꿀 필요없이 밥을 먹게 될 때까지 말이다. 물론 나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직장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한동안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었다.

사실 좀 쉬고 싶었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다. 이제는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만큼 사회의 재복귀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내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쉬다면?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회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존중해 주고, 그 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도대체 그런 날

이 오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까).

그러나 소득 없이 일 많은 것도 팔자인가 보다. 나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다음 일을 맡게 됐다. 그게 바로 페미니스트저널이었다.

아이고, 삼천포로 빠져도 한참을 빠졌다. 다시 본원으로 돌아오자면 내가 사무실에서 젖을 짜낸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때 나는 사무실 어느 구석에 축유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쓰기 시작한 사무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무슨 천주교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곳에는 40대의 기혼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어느날 하루, 날을 잡아 자신들의 집을 정리하고 있던 때였다. 갑자기 사무실 한구석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뭔가를 손에 높이 들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머,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 거야?”

여자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났고, 나는 무심코 거길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그건 내가 쓰던 축유기였다. 나는 얼른 달려가 그걸 가져왔다. 그 당시 사무실엔 예닐곱 명의 여자와 신부님까지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했는지 안했는지 다행히 신부님은 고개를 숙여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난 그 당시엔 그 아주머니들이 왜 웃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다 같은 여자들이니 그런 것쯤은 예사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심하게 기분이



여편이와 건강

15소문

상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 한 명의 여자에게 뒷애기를 들고는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는지 모른다. 얘기인즉슨 이렇다. 그 날 사무실 정리를 끝내고 그 아주머니들과 신부님이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 협담을 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 젖먹이를 내놓고 나와 사무실에서 젖을 짜느냐”는 것이었다. 그것도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수치심과 분노의 고통으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사무실에 출근하기 바로 전까지 수유를 중단하지 않았고, 직장에 다닐 때도 젖이 다 마를 때까지는 오후에 퇴근해 젖을 먹이곤 했다. 그건 분유와 같이 가공된 것을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고 싶어서였고, 앞으로 굉장히 바빠져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상황에서 엄마인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또 물론 집에서 그걸 다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엄마들에게서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슬펐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여자들을 흠 잡으려는 전업 주부들의 마음은 짐작하고도 남았지만 그래도 슬펐다. 그 칼날에 베인 상처는 지금도 잘 아물지를 않는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알겠지만 종종 전업주부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특히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육아

는 취업여성들의 아킬레스건이다. 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자면 그 후로도 나는 몇 번 더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짧은 생각

들꽃무리(ID)

몇달전 TV뉴스에서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고 화상 통화도 가능해 이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시설에 맡길 수 있다는 기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후 보육교사 한마당이라는 통신방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교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본지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와 통신상에 올라온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보육활동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몇가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보육서비스가 아동과 부모에 대한 동시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잇점이 있겠지요. 또한 개방적인 운영의 이미지로 인해 원아모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부정적인 면은 현실적으로 비용의 측면을 생각할 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급히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야 하는 우리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순위에서는 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육활동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그 다음이 부모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순차적인 것도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시급하게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사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에요. 인터넷으로 계속 방송이 된다면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점차 감소될 수 있겠지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장시간 보육으로 힘이 드는 교사들에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예요. 물론 부모가 모든 안보든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신의 보육관에 의해 생활을 해야 하고, 보육활동이 개방되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매체의 성격상 하루 종일,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에 대한 배려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항상 조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점은 보육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부모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보육활동이 공개되었을 때 부모들과의 보육활동에 대한 생각

의 차이를 어떻게 매꾸어 가야할 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많고, 부모들이라고 모두가 같은 입장인 것도 아닐테니까요. 자칫하다가는 교사가 아이들과의 보육활동보다 부모들과의 의견 조율에 더 치중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동육아와 같이 비교적 부모와 교사의 교육관이 비슷하고, 부모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전교육이나 과정에서의 교육, 많은 모임을 통해 의견 조율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교육관이 통일되어 있는 곳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보육에 대해 불신하는 성향도 하나의 근거라고 하는데, 과연 부모의 불신을 인터넷으로 보여줌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권유를 받고, 현실적으로는 비용 때문에 업무를 낼 수 없기도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육에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어린이집의 보육실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컴퓨터를 아이들의 보육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싶고, 또한 질이 좋은 국내외의 많은 보육시설이 이러한 시설이 없이도 부모의 신뢰를 받고, 좋은 질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곳에서 설치한 결과나 평가를 본 이후에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구요, 설치한 곳에서는 특히 자세히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1] "인터넷 통해 아이 노는 모습 살펴보세요" / 국내 놀이방에도 등장

동아일보 980630 12면 (생활) 기획 1180자

◎인천 '색동원' 하루 2시간 동화상 제공 / 부모 환영... 보육의견 E메일 활용도

인천 해양경찰청 방재과의 이석봉씨(33)는 최근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들 우빈군(2)의 모습을 살폈다.

맞벌이 부부라 품에 열이 있는 우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걱정이 됐기 때문. 이씨는 우빈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한시를 놓았다.

교육공무원인 부인 허미경씨(26)도 인터넷으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인천 만수동의 아이보육시설인 '색동원'은 4월말부터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인터넷에 띄우기 시작. 비디오로 찍어 컴퓨터로 연결해 동화상(動像)으로 내보내는 방식. 시간은 오전 10시반~11시반, 오후 3~4시.

색동원 대표 박지성씨(32)는 "부모는 집이나 직장에 앉아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

목소리2

지를 볼 수 있어 편리해졌고 보육과 관련된 의견을 E메일로 활발히 보내온다"고 말한다. 현재 색동원에서는 6주~36개월된 영유아 20여명이 낮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아이를 살피는 가정은 7가구. 비디오카메라 동화상프로그램 랩 컴퓨터 등 장비 마련에만 1천만원이 들었지만 월 이용료는 다른 어린이집과 비슷한 18만~30만원. 색동원은 앞으로 '종일방영' 하고 아이별 홈페이지도 만들 계획. 서울 광명 인천에 있는 10곳의 색동원 체인점도 동화상 체제를 준비 중.
www.kids.co.kr 032-469-5232 <윤양섭 기자 lailai@donga.com>

[0002]인터넷이용 유치원 생중계 한겨레신문 981113 07면 (경제) 뉴스 404자

최근 일부 유치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녀를 교육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있다.(주)크로넷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여러 교육현장을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 이달 초 이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 목동의 원일유치원 김동현(55)원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라고 소문나면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면서

이제실·열린숙제방 보조교사

‘99 저소득아동생활지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지역의 공부방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실 선생님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린 숙제방의 보조교사로 근무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8년에 실직자 재취업교육 과정중 방과후 지도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보육교사 회를 통해 처음 '열린 숙제방'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나름대로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이 바뀐 새 교육에 적응하느라 필요한 교재를 많이 읽기도 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다.

아이들과 만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묘한 혼돈이 왔다.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듭 되물곤 하였다.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왜소하였으며, 늙거나 책상 밑에 숨어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소한 다툼에도 격한 행동과 서슴없이 거친 말을내뱉으며 매사에 짜증을 부렸다.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려 하면 저만치 피하곤 하던 아이들이었다.

천만다행으로 불자자원단체의 도움으로 한끼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가 있어 점심을 먹일 수가 있었고 또한 Food Bank에서 주에 2번 간식도 제공받았으며 부족한 부분은 만들어서 매일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이들은 성격도 다소 유해지며 지구력도 생겨 공부에도 열중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지를 채점할 때마다 틀린 것에 'X'를 표시하여 다시 맞게 고치면 맞은 것으로 해줘 100점을 주었다. 덤으로 귀에다 대고 '수학박사'라는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 중에는 휴일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 탓에 주말에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끔 시간을 내어 영화 관람 또는 근처 사찰이나 유적지로 가볍게 놀러가는 프로그램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요즈음 아이들이 주로 먹는 Fast Food같은 것을 가끔씩 점심이나 간식 메뉴로 섞어 주어 또래의 아이들이 누리는 음식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때 다른 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을 해소해 주어 순수한 동심에 어떠한 앙금도 남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소한 배려를 해주면 이 아이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이 곳에서 만난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귀엽게 생긴 것 외에는 너무나 까불고 사고뭉치여서, 이 아이가 방학 때 시골에 며칠 놀러간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속으로 오래 있다 오길 바랐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라도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말도 웅알거려 잘 알아 들을 수가 없다보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듣는 부분만 정확하게 답을 해주며 천천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항상 쫓고 세우며 잘된 부분에는 꼭 칭찬을 해주었더니 급기야 공부에 열중하며, 숙제 또한 빠지지 않고 다 해가는 모범생이 되어 한달에 2장의 상장을 받아오기까지 하더니 발표 또한 자신있게 또박또박 하였다. 학년이 바뀌어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 아이의 한쪽 귀가 작음을 물어올 때마다 그 아이 앞에서 사람들은 얼굴이 길거나 동그랗거나 네모진 사람이 있듯이 모습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였더니 그후 아무도 더이상 묻지도 않았고 그 아이도 그 점에 개의치 않았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기까지 하였다.

새로 온 1학년 아이 중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면서 행동이 다소 거친 아이가 있었다. 사람과의 접촉을 유난히 좋아하며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면 환하게 웃으며 2주일 간 빈 가방을 메고 공부를 잘 하려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무릎에 안고 하기도 하고, 옆에서 엉덩이를 두드리며 매일 조금씩 쉽고 재미있어 하는 공기들과 색종이로 공부를 며칠 하더니 어느새 알림장도 또박또박 적어오며 숙제도 꼭 해가는 아이로 변해 있었다.

한정된 지면에 모든 아이를 다 쓸 수 없어 아쉽지만 이 아이들과 보낸 6개월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앞으로 나 자신이 노력하여 또다른 모습으로 이 아이들의 주변에서 튼튼한 벽이 되리라 다짐한다.

베를린 리포트2

- 베를린의 음악교육 「리듬에 맞추어 신나게 뛰어보자」

김영명 · 인천, 종달새어린이집 원장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에는 몇가지의 유형이 있다. 어떤 킨더가르텐에서는 담임 교사가 노래를 가르쳐주는 정도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처럼 외부의 강사가 와서 음악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킨더라덴(놀이방)의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킨더라덴 근처에 있는 리듬 앤 뮤직(Rhythm & Musik)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간다. 리듬 앤 뮤직에서는 40대로 보이는 도미니카가 킨더라덴의 아이들이나 개별적으로 부모가 데려오는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다. 독일의 음대에는 기초음악교육이라는 전공 분야가 있어서 도미니카와 같이 유아음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대학에서 기초음악교육을 전공한다. 실내에는 피아노 한 대와 어코디언, 기타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리듬악기와 타악

기, 외국의 민속악기가 선반에 놓여져 있다.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음악 활동을 보았지만 그 중 도미니카의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자세히 수업과정을 소개해볼까 한다.

• 도미니카의 첫번째 음악수업

수업은 우선 피아노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걸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한다. 도미니카는 빠르고 느리게 또는 높고 낮게 때로는 무겁고 경쾌하게 피아노를 치며, 아이들은 도미니카의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걸거나 뛰어다닌다. 그런 다음 한 곳에 둘러앉는데 오늘은 도미니카가 한 아이를 들어올려서 천장에 달린 커다란 쇠

로 된 모빌과 비슷한 것을 치게 했다. 쇠로 된 모빌의 소리는 꽤 아름다운 소리였는데 음악에서 소리의 요소가 강조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그 소리



를 들으면서 도미니카에게 집중한다.

도미니카는 기타를 치면서 간단한 노래 사이 사이에 빙 둘러앉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차를 타고 간다'라는 내용의 짧은 노래를 몇 번 부르면서 노래의 음을 익혔으며, 도미니카는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티켓을 나누어 주었다. 이 곳에서는 항상 노래를 한 자리에서 완전히 익히도록 지도하지 않으며, 간단한 노래를 몇 번의 활동 과정에서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음과 리듬, 그리고 노래말을 익히도록 한다. 도미니카는 아이들에게 티켓을 나누어 주고 긴 줄을 가져와 기차처럼 만들었다. 아이들은 한 명씩 티켓을 내고 기차를 탄다. 아이들은 기차를 탄 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빠르고 느리게 활동할 안을 뱅뱅 돈다.

이런 놀이가 끝난 후에 도미니카는 아이들에게 다시 가짜 돈을 나누어준다. 커다란 천 위에 다양한 악기와 여러 가지 소리나는 것들을 늘어놓고 악기를 하나 하나 들어올려 이름을 말해주고 소리를 들려준 후 아이들이 돈을 내고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골라서 사게 한다. 아이들은 각자가 산 악기나 소리나는 것들을 치면서 어코디언을 치며 앉아서 걷는 도미니카의 뒤를 따라 마치 음악대가 거리를 돌아다니듯이 신나게 뱅뱅 돌며 논다.

도미니카는 어코디언 소리에 맞추어 한 명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리듬만을 치도록 한다. 아이들은 어코디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리듬을 따라하게 된다. 피리를 부는 아이도 실제 음을 부는 것이 아니라 리듬만 같게 부는 것이며 트라이앵글이나 탬버린 등의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다. 한 명씩 치거나 불고 나서는 다시

함께 어울려서 어코디언 소리에 맞추어 악기를 치면서 뛰거나 걸어다닌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기를 천 위에 내려놓고 다시 다른 악기를 고른 후에 비슷한 활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악기를 만져보고 어코디언으로 치는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노래에 맞는 리듬의 소리를 내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커다란 천 위에 악기를 전부 내려놓고 한 곳에 일렬로 앉고 도미니카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악기의 소리를 낸 후 아이들에게 악기의 이름을 맞추게 한다.

이 날의 마무리 활동으로 아이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일렬로 앉고 도미니카는 풍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었으며, 아이들이 피아노 주위에 둘러서서 노래에 맞추어 건반을 함께 두드려 본 다음 음악활동을 끝냈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는 타악기뿐만 아니라 피리나 피아노, 실로폰 등 모든 악기를 가지고 리듬만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 도미니카의 두번째 음악수업

대기실에서 블록이나 인형, 책과 같은 여러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다른 킨더라덴의 수업이 끝나자 음악활동을 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둥글게 둘러앉은 아이들 사이에 한 아이가 누워있자 도미니카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도미니카는 기타를 치면서 '헬로우 가브리엘' '헬로우 아니크'와 같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도미니카가 기타를 치면서 목동에 대한 노래를 몇차례 부르면서 어깨를 들썩이자 아이들도 노래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도미니카는 노래 사이 사이에 아이들이 목동처럼 위스키

를 마시는 흉내, 고기를 뜯어 먹는 흉내, 담배를 피는 흉내를 내게 한다. 노래가 반복되는 동안 도미니카는 '호이 호이'라고 외치면서 흉을 돌고, 아이들도 흥겹게 노래를 함께 부른다. 도미니카가 껌을 씹는 아이에게 껌을 뱉으라고 한 후,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미니카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뛰어다닌다.

아이들은 모두 팔을 펴고서 자리에 놓고, 도미니카는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는 목동의 기분을 잠시 동안 내보는 것이다. 도미니카는 자리에 앉아서 발로 바닥을 두드리고 아이들은 따라한다. 한발로 '탁 탁 탁 탁' 하면서 두드리기도 하고, 양쪽 발로 빠르게 '탁탁탁탁' 두드리기도 한다. 또 리듬감 있게 두 발로 '따단 따단 따단' 하는 리듬을 두드리기도 한다.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서 도미니카가 피아노로 목동 노래를 치는 것에 맞추어 활동실안을 뛰어다니는데 도미니카는 같은 곡을 '따따따'의 리듬으로 빠르게 치기도 하고, '따따단따 단따단따'의 리듬으로 느리게 치기도 한다. 아이들도 피아노의 리듬에 맞추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뛰어다닌다. 도미니카는 목동이 말에게 음식을 먹이는 흉내를 내고 아이들은 말이 되어 음식을 받아먹는 흉내를 내기도 한다. 또 짧은 끈을 가져와서 목동이 말을 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다.

짧은 줄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 후,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아이는 목동이 다른 한 아이는 말이 되도록 하고, 목동이 된 아이는 말이 된 아이를 줄을 사용해서 끌고 다닐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도미니카가 치는 피아노의 노래 소리에 맞추어 목동이 말

을 모는 것처럼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걸거나 뛰어다닌다. 한 참을 신나게 원을 그리면서 돈 다음 이번에는 목동이 되었던 아이는 말이 되고 말이었던 아이는 목동이 되어서 같은 활동을 한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흥겨워하며 빙글빙글 돌고 도미니카는 계속 리듬을 바꾸어가며 피아노를 친다. 도미니카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 세번째 도미니카의 음악수업

처음에 아이들은 도미니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실내를 뛰어다니고, 도미니카는 기타를 들고 아이들을 불러앉게 하였다. 어린 아녜크가 킨더라덴의 교사인 마티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자 마티나는 아녜크가 좋아하는 오스카의 손을 잡게 한다. 도미니카는 아녜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녜크에게 기타줄을 뽐내보게 한다. 아이들은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타줄을 뽐내보았다.

도미니카는 지난 시간에 다른 목동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중간 중간에 목동의 행동을 흉내내도록 했다. 오늘의 주제가 비행기라고 말하고 나서 교사가 기타로 비행기가 순항하는 것, 흔들리는 것 등을 표현하면 아이들은 팔을 벌리고 순항하는 것, 흔들리는 것 등의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팔을 벌리고 엎드려서 비행기와 같은 모양을 한다. 도미니카는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기쁨을 넣어주는 흉내를 낸다. 도미니카는 평온하게 순항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또는 거센 바람이나 비행기의 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연상하도록 다른 분위기를 내면서 피아노를 친다. 아이들은 비행기가 되어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동작을 하면서 무척이나 신

나 한다.

한동안 이러한 동작을 반복한 후에 도미니카는 실로폰, 탬버린, 혼드는 것 등 다양한 악기 앞에다 비행상황을 표현하는 간단한 그림을 하나씩 나누어 놓고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선택하게 한다. 원만한 곡선의 그림, 선이 뒤틀린 그림 등을 보면서 도미니카가 피아노 치는 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은 악기를 두드리고 부는데, 도미니카가 뒤틀린 소리를 내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을 가진 아이가 악기를 두드린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모두가 함께 피아노에 맞추어 두드리고 불고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도미니카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음악활동을 끝낸다.

• 네번째 도미니카의 수업

처음에 도미니카는 기타를 치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인사하는 노래를 불렀다. 도미니카는 기타를 치면서 목동 노래를 몇 차례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음과 리듬을 익히게 한다. 도미니카는 노래 사이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똑딱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 불기, 발을 구르는 등의 동작을 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도미니카가 세게, 여리게, 빠르게, 느리게, 낮은 음으로, 높은 음으로 피아노를 치면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음과 리듬에 맞게 몸으로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흥분하여 신나게 뛰어다닌다. 아이들은 모두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피아노에 맞추어 움직이기도 한다.

도미니카는 아이들에게 트라이앵글, 나무로 되어 흔들면 소리나는 것, 북 등의 악기를 하나씩 고르게 한 뒤 트럭 등 세가지의 간단한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키면 정해진 악기를 치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나서 그룹에서 가장 나이 많은 레오를 앞에 나가게 하여 지휘봉과 비슷한 것을 주고 칠판에 있는 것을 가리키게 한다. 다른 아이들은 레오가 가리키는 그림에 따라 정해진 악기를 치고 도미니카도 따라서 피아노를 친다. 악기를 하나씩 치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함께 악기를 친다. 이 날도 도미니카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이러한 음악활동의 특징은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노래나 어떤 곡의 노랫말과 리듬, 음을 익히게 하고,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게 한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으나 악기를 리듬에 맞추어 두드리고, 불고, 흔들어 보게 함으로써 악기를 접해보고, 소리를 내보고 소리를 모아 본다.

또한 하루 하루의 활동은 그날의 노래가 주제가 되어 연관성 있게 진행된다. 노래 하나를 중심으로 리듬을 익히고, 악기를 다뤄보고, 동작을 해본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악기와 끈, 차표 등과 같은 간단한 소도구를 준비한다. 비행기, 버스, 목동 등으로 주제가 정해지면 대개는 그와 관련된 노래를 몇 번 교사가 부르고 모든 활동을 그 노래에 맞추어 한다. 특히 같은 노래나 곡일지라도 매우 빠르고, 느리게, 낮게, 높게, 경쾌하게, 어둡고 무겁게 연주함으로써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도미니카는 피아노와 어코디언,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함으로써 수업을 단조롭지 않게 진행시킨다. 교사의 위치가 어떤 때는 어코디언이나 기타를 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아노를 침으로써 아이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데 교사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와 아이들의

어우러짐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흥이 나서 굉장히 즐겁게 활동을 한다. 끼지 않고 구석에서 뒹굴 뒹굴 하는 아이도 있었으나 도미니카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거나 혼내지 않는다. 단지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에 가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음 온 아이가 꾸뻛거리면서 잘 끼어들지 못할 때는 손을 잡고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활동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잘 참여하지 않던 아이도 프로그램이 차츰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흥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된다. 아이가 참가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고 오히려 활동을 흥미롭게 진행시켜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끼어들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많고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도미니카도 어려움을 겪고 함께 간 교사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어딘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음악활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점이다. 내가 아이들의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악을 배우는 것보다는 음악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도미니카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한 생각이 실현되고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다.

도미니카가 진행하는 음악활동을 보면서 몇몇 악기를 기능적으로 연주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며 하는 것보다 음악을 훨씬 폭넓게 접하게 하는 수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악기와 친숙하게 하고 음감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게 하는 음악활동은 유아 때부터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딱

딱하게 가르치거나 이론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원에서 진행되는 음악교육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래에 맞추어 똑같은 율동을 따라하도록 가르치는 음악활동과도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뮤직슐레(Musik Schule)로 한달에 킨더라텐에서 300마르크(15만원)를 내며, 시에서 운영하는 폴크스호흐슐레(Volkshochschule)라는 시민학교의 뮤직슐레(Musik-Schule)의 음악활동도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학교의 뮤직슐레에서는 4-6세의 유아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음악교육을 하는데, 가격은 3개월에 4만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도미니카의 수업처럼 다양한 악기를 접해보고 선생님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며,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음감을 익히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면 2년 내에 선생님이 판단하여 악기를 정해주는데 선생님은 체력과 소질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개인지도 선생님을 소개해 준다. 독일의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부터 악기를 배운다고 한다.

규모가 큰 킨더가르텐에는 대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음악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베를린 공대 부설 킨더가르텐에서 있을 때 각 그룹에서 진행되는 음악활동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룹에 따라 답답 교사가 음악활동을 진행하거나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이 추가로 한 달에 20마르크(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1주일에 한 번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음악수업을 하

는 경우에 시민학교의 뮤직슐레나 도미니카의 리듬 & 뮤직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단지 진행하는 강사가 미숙하여 도미니카의 수업에서와 같은 흥겨움은 없는 경우가 있었다.

• 활동 하나

한 그룹에서 진행된 활동은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교사가 아이의 손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에 따라 크게, 작게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곳에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사용할 것 같은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가 많이 있다. 아이들은 잠시 동안 집중해서 하더니 조금 후에 지루해하면서 활동에 잘 참가하지 않았다. 교사는 악기를 모아서 다른 빈 방의 악기를 보관하는 장에다 갖다 넣었다.

• 활동 둘

클래식 음악에 맞추어서 부들부들하는 인조실크같은 천을 흔드는 활동을 하였는데 시작하기까지 녹음기는 말을 안듣고 아이들도 통솔이 안되어 매우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수업을 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음악에 맞추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지만 만 5세 정도의 아이들은 음악에 맞추어 표현을 잘 하였다.

• 활동 셋

이 그룹의 수업은 외부에서 오는 강사가 진행하였는데 녹음기의 노래에 맞추어 교사가 코끼리 흉내를 내면서 왔다갔다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었다. 또 클래식에서 빠꼭(쿠크) 소리가 날 때 교사는 연주에 사용한 악기를 들어보이고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쿠크 소리가 몇번 나왔는지

를 종이에 표시하고 교사가 체크해 주었다. 교사가 듣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활기도 없고 잘 진행되지 않는 수업이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도 결여되어 있었는데, 음악적인 효과는 어떨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노래를 듣고 느낌을 그리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듣기 훈련에 좋지 않았을까.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경우에 일단 큰 교실에 기타 외에도 교사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다는 점도 도미니카의 수업과 다른 분위기다. 도미니카는 피아노, 기타, 어코디언 등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끼기도 하고, 아이들 밖에서 주도해 나가기도 했는데.

• 활동 넷

수잔의 그룹에서는 자주 노래 테이프를 틀어놓는다. 교사가 노래와 율동을 자주 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가끔씩 함께 노래를 한다. 킨더라텐이나 킨더가르텐에서는 음악수업 이외에는 노래하는 것을 별로 틀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수잔의 그룹 아이들은 노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 수잔의 그룹에서 본 음악 활동은 교사가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노래에 맞추어 탬버린을 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 하나가 고양이가 되어 다른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율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4명이, 또 그 다음에는 8명이 율동을 하며 마지막에는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한다.

율동을 한 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실 밖에까지 빙 돌아 온다. 아이들이 이미 율동을 아는 것을 보면 그 전에 해본 적이 있는 듯하다.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베를린의 다른 곳에서의 활동과는 달리 정해진 율동을

노래에 맞추어 하는 활동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좋아하였다.

베를린 공대 부설 킨더가르텐의 음악활동은 각 그룹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음악활동도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직접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통에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는 콩같은 것을 넣어 마라카스를 만들기도 하고, 원통의 한 쪽에는 가죽을 붙이고 다른 한 쪽에는 다른 소재를 붙여서 양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도록 만든 악기도 있었으며 아프리카의 북같은 것도 있다. 음악은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활동이므로 아이들이 악기를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악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는 것은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고 원하는 아이에 한해 연령 별로 그룹을 만들어 음악 활동을 진행한다.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주로 배웠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강사의 주변에 둥글게 둘러앉아 강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 아이들은 발을 구르거나, 손뼉과 무릎을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열심히 목청껏 부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누워서 부르기도 하는데 마치 캠프화이어라도 하듯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던 어떤 아이는 활동실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강사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코끼리 흉내를 내면서 걸거나 놀기도 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또 새에 대한 노래를 할 때는 아이들이 새의 흉내를 내면서 노래에 맞추어 돌아다니다 등지에 숨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간단한 동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활동이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흥겨운 수업이었다.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에 맞추어 일정한 움직임을 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노래에 맞추어 걸거나 뛰고 무릎을 두드리거나 손뼉을 치면서 리듬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또 노랫말 내용에 맞게 제 나름대로 몸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립킨더가르텐의 음악활동은 일주일이나 이주일마다 한 번 정도 있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지는 않는다. 이 곳에서도 장애아 통합 교육을 하는 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자주 음악활동을 하는 편이다. 오전에 있는 모닝타임(morning time) 시간에 교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노래를 합창하였다. 일반아동의 그룹인 마리온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 교사 마리온은 아이들이 비가 와서 그림 그리거나 게임과 같은 실내놀이를 하는 동안 기타를 치며 그 날 있을 음악수업을 준비하였다. 처음에 마리온은 기타를 치고 아이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노래를 합창한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서너 번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고 몇몇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다른 노래도 2번 정도 박수를 치면서 부른다. 한 번은 여아들이 한 번은 남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한 번씩 부른 다음 음악활동을 끝냈다. 수업은 창의적인 방법이나 모색이 담겨있지는 않은 단조로운 활동이었다.

베를린의 보육시설에서는 활동실에 피아노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신에 킨더가르텐의 각 그룹에 기타가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 기타는 간혹해서 아이

들과 둘러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활동을 진행시킬 수 있는 좋은 음악수업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악기지만 아이들이 항상 교사의 등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해야 하며 가격도 비싸서 어느 반이나 비치하는데 어려운 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기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느 킨더가르텐에서나 훌륭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곳에서의 음악교육을 접하고 보니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다소 단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성인이 되어도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즐겨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음악적인 특징은,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독일 사람들의 음악적인 특징과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의 음악교육에도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비

슷한 음악활동을 추구하지만 교사의 숙련도나 자질에 따라 다양한 질의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고 음감이나, 리듬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이곳의 음악 교육은 나에게 꼭 인상적이었다. 특히 도미니카의 음악수업은 노랫말과 움직임을 그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의 내용과 노래의 분위기를 아이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접목시킨 것이 좋게 느껴졌다. 이러한 음악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 기초음악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도 간단한 원리를 응용해서 음악교육을 변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베를린의 음악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1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음악활동을 단조롭게 구성하지 않고,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함으로써 음악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한다. 음악에 맞추어 뛰어보게 하고, 목동이 되어 말을 몰아보게 하며, 비행기가 되어보게 하는 등 하나의 노래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규모의 통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활동의 즐거움이 강조되는 분위기이므로 가정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억지로 하기 싫은 악기를 가르치는 일은 거의 없다. 억지로 가르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그들의 음악교육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려서부터 악기 연주를 억지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독일국민의 음악 수준은 꽤 높아 악기 하나 정도를 연주할 수 있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으며,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2 음악을 통해 즐거움이나 편안함, 슬픔 등 다양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노래에 나오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노랫말이 담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음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목동이 나오는 노래가 주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목동처럼 누워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어도 보고, 위스키를 마시는 동작을 해보기도 한다. 또한 같은 곡이라도 각기 다른 느낌이 나도록 연주하고, 연주에 맞추어 동작을 해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느낌을 체험하게 한다.

3 음악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된다. 느낌이나 소리, 작곡, 노랫말, 악기, 오케스트라 등 음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4 다양한 악기를 접해보고, 악기를 만들어 본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보다는 우선 다양한 악기를 만져볼 수 있게 하고, 악기를 두드려 봄으로써 소리를 들어보게 하고,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두들겨 보거나 치게 한다.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소리가 나는 다양한 물건들을 음악활동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악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는 활동을 통해 악기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 문화 속에서 찾는 유아교육

우리 아이들이 우리 문화가 숨쉬는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전래노래, 전래놀이 등 우리문화를 보육현장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보육교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이 우리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 최 : 한국보육교사회
주 관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인천지부/안산지부/수원지부
일 시 : 1999년 7월 24일 오후 6시 30분~7월 25일 오후 3시
장 소 : 숭실대 사외봉사관
참가비 : 35,000원 (정회원 30,000원)

• 접수 및 등록 : 전화접수 (2275-8505/2268-3954) 후
사전입금 (구좌번호: 한빛은행 456-08-184504 예금주 오운정)
행사당일 6시까지 등록을 마쳐주시시오.

첫째날 (오후 6시 30분~오후 11시 30분)

- 주제 강연 - 전통 문화의 정수, 전래노래 속에 깃들여 있는 우리 문화
강사 : 문재현 (민족교육연구소장)
- 전래 노래 실재
강사 : 민족교육연구소
- 사상의학으로 본 아이들의 체질과 기질
강사 : 송재희 (플라톤 아카데미)

둘째날 (오전 9시~오후 3시)

- 한국 미술의 선, 색, 형
강사 : 정승각 (화가)
-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의 실제
강사 : 박은하 (안산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교사)
- 전래놀이
강사 : 고정미 (국악, 전래놀이 강사)
- 우리 풍속의 우수성
강사 : 연성수 (두레민족생활문화원장)

연수장소 찾아오는 방법

영등포 시장에서 오시는 길
시내버스 122번, 92-2번 → 숭실대앞 정류장에서 하차 → 길 건너 도보로 300M → 숭실대학교
1호선으로 오시는 길
1호선 '서울역' → '노량진' 역 하차 → 143번 버스타고 종점(숭실대학교)에서 하차(20분 소요) → 숭실대학교
지하철 4호선 → 2호선으로 오시는 길
충신대 입구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대입구' 역 하차 → 관악프라자 방향 → 택시(기본요금) → 숭실대학교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 교육

늘 현장 교사들의 고민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저희 부산보육교사회에서 올 여름연수의 주제로 독일에서 태동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안교육의 한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으로부터 우리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발도르프 교육을 이해하고자,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소주제로 하여 발도르프 교육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강사 : 윤선영

국제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연합 한국회원

독일 베를린대학교 교육학부 박사 (세부전공-보육교사교육)

충남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강사

소주제란?

1.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에 반응해야 하는가?
2.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인 하루일과와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가?
3.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의식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
4. 어떻게 교사와 어린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5. 교사의 교육관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연수일정표

시 각	내 용
이른 9:30	들어가는 마당 (함께 배우는 노래)
10:00~12:00	• 어린이 발달과정의 인지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해 (어린이의 감각기능,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현대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감각교육)
12:00~1:00	점심식사
늦은 1:00~1:30	인사합시다 (전래놀이, 전래요)
1:30~4:30	• 어린이와 함께 하는 생활교육 (리듬의 의미, Reigen 창작, 인형극-인형만들기) • 교사의 인성 발달 (영양) • 교사의 교육관 형성 • 총정리

-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 주관 : 부산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 일시 : 1999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장소 :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종합센터 시청각실 (1층)
- 참가비 : 20,000원 (점심식사, 인형만들기 재료 포함)
- 준비물 : 가계손수건 1장, 반질고리, 가위
- 문의 및 접수 : (051) 816-4383 / (051) 557-1229
- 참가비 입금 : 농협 929-02-255371 박찬주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 교육

안녕하세요?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리는 구슬땀 만큼이나 많은 교육 연수가 있는 7월입니다. 저희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99년 여름연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발도르프 교육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소주제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발도르프교육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연수일정표

시 각	내 용
오전 10:00~12:00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교육 • 어린이 발달과정의 인지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해 (영유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현대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감각교육)
오후 1:30~4:00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리듬의 의미, Reigen 창작, 인형 만들기) • 교사의 인성발달 (영양) •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 교사의 교육관 형성
12:00~1:00	점심식사
1:00~1:30	3, 4, 5세 유아를 위한 우리체조 / 공동체 놀이

강사: 윤선영(국제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연합 회원, 독일 베를린대학교 교육학부 박사 / 세부전공:보육교사교육)

-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 주관 : 광주·전남보육교사회 / 전북보육교사회
- 일시 : 1999년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삼성생명 광주지역본부 (교육연수실 15층 / 금남로 5가에 위치, 롯데백화점 근처)
- 참가비 : 20,000원 (이전 연수 참가자, 회원 18,000원) - 자료집, 점심, 재료비 포함
- 준비물 : 무늬 없는 단색의 가계 손수건, 반질고리, 가위
- 접수 및 등록 : 광주·전남보육교사회 (062) 228-6786 / (062) 954-0613
전북보육교사회 (0652) 253-0389
- 사전 입금 : 광주지역 (농협 696-12-046352 이정미)
전북지역 (전북은행 003-35-0073361 강선희)

보육계 동향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노래, 우리 장단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주관으로 교사교육 강좌가 개최된다. 가을과 겨울 계절에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장단과 관련하여 기본장단 익히기(장구), 전래동요와 창작동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민요 등 2학기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알차다.

- 일시 : 7월 20일~8월 5일 오후 7시~9시 (매주 화, 목 3주간 6회)
- 장소 : 상계동 섬머힐 어린이집 지하 강당
- 참가비 : 3만 8천원(강습 테이프 및 악보 화일 제공)
- 문의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북부지회 02)952-3726

전국 유아교육 지도자 실기연수회

- 일시 : 7월 26일~27일/8월 2일~3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학령전기 아동교육 연구원 대강당
- 프로그램 : EQ음악감상교육발표회, 유아와 함께하는 R.C의 모든것, 재봉틀을 위한 창작 율동 및 사물놀이 등
- 문의 : 학령전기 아동교육연구소 (042-524-2904)

99년 전국 유아교사를 위한 하계 특별강습회

- 서울·경기권
 - 일시 : 7월 28일~29일
 - 장소 : 경기도 광주 중부 수련원
- 부산·경상권
 - 일시 : 8월 2일~3일
 - 장소 : 부산 합지공 수련회
- 호남·충청권
 - 일시 : 8월 6일~7일
 - 장소 : 전주 유스호텔

- 프로그램 : 풍선아트, 재봉틀을 위한 창작 율동 및 사물놀이, 유아무용, 생활지도를 위한 손유희, 구연동화지도법, 색종이 오리기 실습 등
- 문의 : 한국유아교육연구회 (02-702-4123~5)

제3회 유아교사 여름 강습회

- 일시 : 7월 27일~28일
- 장소 : 부산 YMCA17층 대강당 및 수영장
- 프로그램 : 유아리듬 신체조, 노래동요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유아수영 교육지도법, 신문활용 교육법 등
- 참가비 : 5만 7천원
- 문의 : 부산 YMCA (051-440-3343~4)

제31회 전국유아교육지도자 실기 연수회

- 일시 : 7월 29일~30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 세계일보 대강당
- 프로그램 : 유아사물놀이, 복화술, 동화구연, 새노래 율동 및 손유희, EQ개발을 위한 21세기 미술교육 등
- 문의 : 국제아동지도자 협회 (02-601-5454)

주게스토메디 통합예능지도자 여름연수

- 기간 : 1999년 7월3일 - 9월 4일 (토) 오전 10시~13시(10주)
- 대상 : 교사(유아, 초등교사, 예능교육전문가)와 예술가
- 수강료 : 30만원
- 제목 : '하늘천 따지'
 - 1회 : 주게스토메디 통합예능교육
 - 2회 : 민족음악교육=통합교육(가, 무, 악)
 - 3회 : 전래동요와 우리 몸짓(수벽치기)
 - 4회 : 전래동화와 연극

보육계 동향

- 5회 : 새로운 대본쓰기
- 6회 : 주게스토메디를 통한 Teamwork
- 7회 : 주게스토메디를 통한 새로운 음악교육
- 8회 : 현대동요와 무용의 기본
- 9회 : 현대동화의 연극
- 10회 : 인형극(음악)
- 강의
 - 박성순(주게스토메디 원장)/육태안(수벽치기 전수자)/유홍영(사다리 교육극단)
- 연락처 : 015-8535-1080 (김은지) 016-9716-9794 (박성순)

주게스토메디 유아교실

- 때 :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 곳 : 충추는 민들레(혜화동)
- 대상 : 만4세 이상

- 참가비 : 15만원(10주)
- 연락처 : 015-8535-1080 (김은지) 016-9716-9794 (박성순)

아빠 시골 어땀어요?

- 한국토종 곤충 및 민물고기, 야생화 전시회
- 전시일시 : 7월 3일~8월 31일
- 전시 장소 : 서울 국도문화센터
- 내용 : 살아있는 불개미, 개구리, 뱀, 나비, 애벌레, 장수벌레, 토종민물고기 우리 등 수십여종의 민물고기들이 박물관 형태로 꾸며져 전시된다.
- 시간 : 10시30분개장 - 20시 폐장
- 입장료 : 4000원
- 전시 문의 : 02) 2279-7447

소식과 소식

차등 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공청회

지난 7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동육아연구원, 서울 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가나다순)의 주최로 「차등 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보육관련 단체의 장, 학계, 시설장, 현 교사 등 약 80여명이 모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민간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교수의 「전환기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방향」,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처장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허선(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교수의 「차등보육료 도입방안에 관한 제안」등의 주제 발표와 고경화(한나라당 여성국장), 박정혜(전국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정병호(공동육아원장), 정희연(한국보육교사회장), 최민식(새정치국민회의 사회복지전문

소식과 소식

위원)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저희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3차 정기 이사회

7월 3일에 있었던 제3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보육법 개정작업은 현재 유보 상태이며 이에 대해 이후 민간 주도의 법개정과 제도 개선 작업 추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신입교사 교육 내용의 수정과 중견 교사(경력 3년 이상) 재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정책단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사정책단이 탄생했습니다. 교사정책단은 보육현장에서의 생생하고, 교사들과 밀접한 보육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비상설적인 기구입니다. 현장 교사 중 보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김명선, 서미연, 이기원, 이윤경 선생님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사정책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6월 12일 여성평화의집 지하 강당에서 99년 정기회원 강좌가 있었습니다. 「부모상담 기법」의 내용을 유정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선생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총 17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8월 서울지부 운영위가 창립 이후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의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서부지회 - 6월 23일 어깨동무 어린이집에서 회원 모임을 했습니다. (마포구 구립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악 모임은 6월부터 월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 정안에 대해 회원들간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여름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부산지부

· 6월 2일 「아이들과 만드는 전통음식, 요리 활동」을 주제로 교사 재교육이 있었습니다.
· 6월 27일 생태유아교육강좌 산청 간디학교 견학을 13명의 회원이 다녀왔습니다.
· 7월1일 「남녀차별 금지법」시행을 기념하여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차별을 넘어 함께 만드는 세상을 이루도록 부산지역의 모든 여성들이 모여 화합과 평등으로 한판 어우러지는 "부산여성 평등 문화제(차별을 넘어 함께 만드는 세상)"에 부산보육교사회가 회원 단체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8월20일-21일 부산지부 여름 수련회가 한지골 수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광주지부

· 7월31-8월1일 광주지부 여름 수련회 및 신입회원 교육이 있습니다.

부천시외 준비위

소모임으로 「보육을 위한 통신공부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종이접기 교육에 4월부터 참여해서 7월에 끝납니다. 7월 17~18 안면도로 부천시외준비위의 여름수련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소식과 소식

사람들

환영합니다

부산지부 친구지회의 김정애 선생님이 새로운 회원이 되었습니다.

서울 남부지회의 정미영, 전영임(튼튼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름휴가를 함께할 애인을 구합니다

이창미 선생님 - 키작고 톱퉁한 것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보육교사입니다. 나이는 27세랍니다.

현익정 선생님 - 운전면허 떨어진 것 빼고는 흠잡을 때 없는 풀피리같은 노처녀 보육교사입니다. 30세 입니다.

주위에 좋은 남자 있으면 보육교사회로 연락주세요.

* 부천 지회 준비위에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5월 25일-7월 5일)

〈서울지부-북부지회〉

박영미(2~4월) 박지예라(4~5월) 서미연(6월), 황호정 (6월)

김정숙(6월), 장명신(6월), 김금옥(4월), 유은성(5월), 윤은주(3~4월), 안경자(4월), 권미정(3~6월), 최윤진(3~6월)

〈서울지부-남부지회〉 6월까지 완납

〈서울지부-서부지회〉 5월

〈인천지부〉 4월까지 완납

〈경기-수원지회〉 5월까지 완납

〈경기-기타〉 유필녀(6-7월)

〈평생회원〉 유정은(1-6월), 심선경(1-5월)

〈자료회비〉 정성희

후원해주셨습니다.

김난희(5000원)

국민은행 구좌에 김영은 이름으로 5만원 입금해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6·7월 활동일지

6월 7 영유아보육법 개정관련 EBS 인터뷰
8 집행위 회의
10~12 차세대 여성지도자 훈련(여연 주최) 참가
14 집행위 회의
16 수도권 여름연수 준비팀 회의
28 집행위 회의
29 보건복지부 회의 참가
30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6차 간담회

7월 2 차등 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3 3차 정기 이사회
10 그룹 운영자 모임
12 3단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시작
24 전라도권 여름 연수
24~25 수도권 여름 연수

교사 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지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 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의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천리안)